

발 간 등 록 번 호

12-1371748-000065-01

www.clip.go.kr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18. 4. 9 ~ 2020. 4. 8

Presidential Commission on
Library & Information Policy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발 간 사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입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에 관한 국가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고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2018년 4월 9일 출범한 제6기 위원회는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새 정부 문화정책 기조에 맞춰 도서관계는 물론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위촉하여 새로운 체계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정부 각 부처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제6기 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얻어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고 활동의 폭을 넓혀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본연의 위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은 그 동안 위촉되었던 위원회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된 기간이었습니다. 그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이제 본격적으로 임무를 감당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고 여깁니다.

이 보고서는 제6기 위원회의 지난 2년간 활동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위원회가 추진해야할 전략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입니다. 도서관 발전을 통해 당당한 문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 보고서가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힘든 기간에 애써주신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님들, 신설된 사무국 공직자들, 그리고 위원회 활동에 성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신기남



목 차

발 간 사

제 1 장 ▶ 위원회 현황

제 1 절 설립 배경 및 주요 연혁	3
제 2 절 위원회 구성	4
제 3 절 주요 기능과 역할	6

제 2 장 ▶ 위원회 회의

제 1 절 전체회의	9
1. 제 1 차 전체회의	10
2. 제 2 차 전체회의	11
3. 제 3 차 전체회의	13
4. 제 4 차 전체회의(서면)	14
5. 제 5 차 전체회의	15
6. 제 6 차 전체회의(서면)	17
제 2 절 소위원회 회의	18
1.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	18
2.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21
3. 4 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	23
4.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	24
5.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	25
제 3 절 소위원장 회의	27
1. 제 1 차 소위원장 회의(2018. 5. 1.)	27
2. 제 2 차 소위원장 회의(2018. 7. 10.)	28
3. 제 3 차 소위원장 회의(2019. 2. 25.)	28
4. 제 4 차 소위원장 회의(2019. 7. 11.)	29
5. 제 5 차 소위원장 회의(2019. 11. 29.)	29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제 4 절 3 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31

- 1. 추진배경 31
- 2. 추진경과 31
- 3. 성과 및 의의 31

제 3 장 ▶ 위원회 활동사항

제 1 절 제 3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립 35

- 1. 추진배경 35
- 2. 추진경과 36
- 3. 주요 내용 38

제 2 절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 40

- 1. 추진배경 40
- 2. 평가지표 40
- 3. 평가방법 42
- 4. 주요 내용 42

제 3 절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정책 포럼 52

- 1. 추진배경 52
- 2. 주요 내용 52

제 4 절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세미나 55

- 1. 추진배경 55
- 2. 주요 내용 55

제 5 절 국제도서관연맹(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57

- 1. 추진배경 57
- 2. 주요 내용 57

제 6 절 국내 도서관 현장 소통 강화 65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제 4 장 ▶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제 1 절 추진배경	77
제 2 절 추진경과	78
제 3 절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79
제 4 절 위원회 정책방향(2020~2022)	83

부 록

1. 제 6 기 위촉위원 명단	87
2. 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88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표 차례

표 1-2-1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촉위원	4
표 1-2-2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5
표 2-1-1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체회의	9
표 2-2-1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	18
표 2-2-2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21
표 2-2-3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4 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	23
표 2-2-4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	24
표 2-2-5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	25
표 2-3-1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장 회의	27
표 3-1-1	제 3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포럼위원	36
표 3-1-2	제 3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자문위원	37
표 3-1-3	제 3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	38
표 3-2-1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41
표 3-2-2	2018 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평가위원 (이름 가나다순)	43
표 3-2-3	2018 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참여 현황	44
표 3-2-4	2018 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44
표 3-2-5	2019 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평가위원 (이름 가나다순)	47
표 3-2-6	2019 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참여 현황	48
표 3-2-7	2019 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49
표 3-3-1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정책 포럼 세부 일정	52
표 3-3-2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정책 포럼 발제 및 토론 개요	53
표 3-4-1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세미나 세부 일정	55
표 3-5-1	2018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위원장 주요 일정	58
표 3-5-2	2019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위원장 주요 일정	61
표 3-6-1	위원장 국내 도서관현장 방문 등 대외활동 일정	65
표 4-1-1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0 대 과제 및 4 대 긴급사안'	77
표 4-1-2	특별전담반 구성 및 운영	78
표 4-1-3	정책제안의 근거 1- 도서관법 제 12 조	80
표 4-1-4	정책제안의 근거 2- 제3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전략방향 및 핵심정책과제	80
표 4-1-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81
표 4-1-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방향(2020~2022)	83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그림 차례

그림 2-1-1	제 1 차 전체회의(2018. 4. 20.)	11
그림 2-1-2	제 2 차 전체회의(2018. 12. 21.)	12
그림 2-1-3	제 3 차 전체회의(2019. 4. 26.)	14
그림 2-1-4	제 5 차 전체회의(2019. 12. 18.)	16
그림 3-1-1	제 3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립	39
그림 3-2-1	2018 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	46
그림 3-2-2	2019 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	51
그림 3-3-1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정책 포럼(2019. 4. 19.)	54
그림 3-4-1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세미나(2019. 10. 17.)	56
그림 3-5-1	2018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60
그림 3-5-2	2019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64
그림 3-6-1	위원장 국내 도서관현장 방문 등 대외활동	67



제1절 설립 배경 및 주요 연혁

법정부 차원의 통합적 도서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8029호가 공포되었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근거(법 제12조)가 마련되었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법 제14조)하게 되었다.

2007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정책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2일 제1기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다만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기구는 위원회가 발족한지 11년이 지난 2018년 11월 13일에 구성되었고, 2019년 10월 8일 법제화(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 2 신설)되었다.

위원회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 '07. 04. 0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도서관법」 제12조)
- '07. 05. 02. 도서관정책기획단 설치
- '07. 06. 12. 제1기 위원회 발족(위원장: 한상완)
- '09. 06. 12. 제2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김봉희)
- '11. 08. 01. 제3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김봉희)
- '13. 12. 03. 제4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최은주)
- '16. 03. 01. 제5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신숙원)
- '18. 04. 09. 제6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신기남)
- '18. 11. 13. 위원회 사무기구(사무지원단) 구성
- '19. 10. 08. 위원회 사무기구(사무국) 설치(「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절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당연직위원과 도서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임기 2년의 위촉위원으로 나뉜다.

2018년 4월 제6기 위원회 출범 당시 당연직위원은 11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의 장관이었으며, 위촉위원은 도서관·독서·출판·문화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19명을 위촉하였다.(위촉위원 명단 표 1-2-1 참고)

위원회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5개의 소위원회인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도서관법·제도소위원회,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남북교류소위원회를 두었으며, 각각의 소위원회는 <표 1-2-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1-2-1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촉위원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신기남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제5·16·17·19대 국회의원	위원장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소위원장
김상현	네이버 경영 고문	소위원장
김수연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	소위원장
박영숙	네트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박완순	박완순 인성교육개발원 이사장	
박재섭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교수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소위원장 ('19. 9. 5. 위원 해촉)
우찬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위원장
이상복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소위원장
이수상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순녀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정미	인덕대학교 도시환경디자인학과 교수	
이중창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파주 기림도서관장	

성명	주요 경력	비고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현주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정윤희	출판저널 대표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 서혜란 위원의 경우, 정부인사발령(국립중앙도서관장 임명)으로 2019년 9월 5일자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였음

표 1-2-2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이상복(소위원장), 이정미, 이지연, 이현주
도서관법제도소위원회	서혜란(소위원장), 우찬제, 이종창, 이지선
4차산업혁명적응소위원회	김상헌(소위원장), 이수상, 정윤희, 한혜영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김수연(소위원장), 박영숙, 박완순
남북교류소위원회	고영만(소위원장), 박재섭, 이순녀

※ 서혜란 위원의 경우, 정부인사발령(국립중앙도서관장 임명)으로 2019년 9월 5일자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였음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이 겸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상 도서관정책기획단의 업무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가 규정되어, 도서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3절 주요 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도서관 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 도서관정책의 조정 및 그 밖의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라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1. 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4. 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논의과제는 소위원회회의에서 사회적 이슈와 파급효과 그리고 국정철학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검토한 후, 소위원회 회의에서 심층 검토 결과를 기초로 논의를 확정한다.

과제검토는 사무국의 사전검토, 분과위 배정, 분과위 검토 등을 거쳐 소위원장회의에서 최종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전체회의에서 과제를 검토함과 아울러 관계 부처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반영하며,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과제는 위원회 간 사전 실무협의 등을 거쳐 과제담당 주체를 결정한다.

2 장 위원회 회의

- 제 1 절 전체회의
- 제 2 절 소위원회 회의
- 제 3 절 소위원장 회의
- 제 4 절 3 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02

위원회 회의

제1절 전체회의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총 6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개최일자와 상정 안건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체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18. 04. 2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 (보고)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현황
제2차	2018. 12. 2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층 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립(안) · (보고)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제3차	2019. 04. 26.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층 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안) · (보고)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 (보고) 도서관법 전부개정안(도종환의원발의, '17.2.7.) 추진 현황
제4차	2019. 09. 26.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제5차	2019. 12. 18.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층 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안) · (심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 · (심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 (보고) '19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및 향후 개선 방향 · (보고)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 활성화 계획(안) · (보고)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계획(안)
제6차	2020. 02. 27.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정안

1. 제1차 전체회의

제6기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는 2018년 4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전체회의는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의 위촉위원과 2명의 정부위원(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이 참석하였다.

이날, 안건 논의에 앞서 제6기 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진행되었으며, 신기남 위원장이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심의
-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현황 보고

회의 결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세칙 규정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의 위상 확립, 사무 공간 확보, 사무기구 구성 및 지원 강화 등 위원회 긴급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주요 의견으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산적해 있는 도서관계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6기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있었으며 도서관 남북교류,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 연계 활성화, 사립대학도서관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2-1-1 제1차 전체회의(2018. 4. 20.)



도종환 문체부 장관(왼쪽)과 신기남 위원장



2. 제2차 전체회의

제2차 전체회의는 2018년 12월 21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2차 전체회의는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의 위촉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참석하였다.

이 날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정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립(안)에 대한 심의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보고되었다.

첫 번째 안건은 과제별로 위원들의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원안 의결되었다. 또한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교도소와 군부대에서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서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독서와 출판 정책의 연결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보고 안건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후 광역지자체를 순회하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2-1-2 제2차 전체회의(2018. 12. 21.)



도종환 문체부 장관(왼쪽)과 신기남 위원장



3. 제3차 전체회의

제3차 전체회의는 2019년 4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전체회의는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의 위촉위원과 5명의 정부위원(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이 참석하였다.

제3차 전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 도서관법 전부개정안(도종환의원발의, '17.2.7.) 추진 현황 보고

첫 번째 안건은 위원들의 과제별 수정사항을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후 반영하여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의결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함께 작성 매뉴얼이나 핵심과제별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분리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두 번째 안건은 보고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시행계획에 따른 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해 목표대비 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추진실적도 지침과 작성 매뉴얼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세 번째 안건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지정, 국·공·사립 모든 도서관의 등록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 전부개정안(도종환의원발의, '17.2.7.) 추진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하였다. 또한 국회 계류 중인 도서관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2-1-3 제3차 전체회의(2019. 4. 26.)



4. 제4차 전체회의(서면)

제4차 전체회의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에 대해 2019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면심의로 추진하였다.

시행계획 수립지침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2019년 10월 14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되었다. 관계 기관은 동 수립지침을 토대로 11월 30일까지 2020년도 시행계획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12월 18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2020년도 시행계획은 12월 31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모든 도서관에 공유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와 시행계획 수립주체 간 정책 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5. 제5차 전체회의

제5차 전체회의는 2019년 12월 18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제5차 전체회의는 신기남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촉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이 참석하였다.

제5차 전체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 심의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심의
- 2019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및 향후 개선 방향 보고
-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 활성화 계획(안) 보고
-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계획(안) 보고

첫 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미제출 기관의 계획을 추후 반영하여 2020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하도록 의결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작성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및 공기업 도서관까지 시행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작성지침에 반영,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안건인 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과 세 번째 안건인 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규정의 존속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 및 관계부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사무국 조직의 운영기간이 추후 연장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특별히 협조를 요청하였다.

네 번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 안건으로 2019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및 향후 개선 방향이었으며, 교육부 소관 대학도서관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도서관 운영 평가가 정량지표 중심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2020년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맞는 지표개선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3억 원의 예산 확보는 큰 성과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새로운 평가지표 및 방법 등의 충분한 현장 안내를 통해 2020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 활성화 계획안이 보고되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서관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상호협력 증진 및 공동 문제 협의 모색 등의 추진을 위한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6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바, 제7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동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개최 등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섯 번째 안건은 보고 안건으로 제6기 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계획안이었으며, 보고서에는 제6기 위원회의 정책제언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정책제언은 위원회 자체 연구모임인 ‘도서관협치전략연구모임’에서 논의한 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및 도서관발전을 위한 실행 과제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전체회의 말미에는 ‘도서관협치전략연구모임’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주요 사항을 보고하였다.

그림 2-1-4 제5차 전체회의(2019. 12. 18.)



신기남 위원장(왼쪽)과 김용삼 문체부 차관



6. 제6차 전체회의(서면)

제6차 전체회의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19.10.8.)에 따른 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따라「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정(안)을 서면심의('20.2.25~27, 3일 간)로 추진하였으며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위원회 사무국 운영 및 단위업무 중 일부 중요사항에 대한 결재권을 향후 사무국장이 아닌 위원장으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 규정의 제정은 위원회 사무국의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제2절 소위원회 회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3조 제8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각 분과(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도서관법·제도소위원회,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남북교류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을 각각 지명하고 분과 간의 원활한 의견소통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위원장 주재로 소위원장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1.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총 12회의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2-2-1>와 같다.

표 2-2-1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18. 05. 29.	국립중앙도서관 소회의실	·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의 역할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위원회 정책개발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상회복과 독립성 확보
제2차	2018. 08. 10.	국립중앙도서관 6층 대회의실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거버넌스 분야 정책과제 검토
제3차	2018. 10. 12.	위원회 회의실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중간보고 시전 검토
제4차	2018. 11. 20.	위원회 회의실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과제(안)
제5차	2019. 03. 08.	위원회 회의실	·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정책포럼 개최 · 도서관 정책 관련 TF 운영 필요성 및 방식 논의
제6차	2019. 04. 25.	위원회 회의실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추진실적 점검 방법
제7차	2019. 04. 29.	위원회 회의실	· 도서관·독서·출판계 상호 협조 및 발전 방안
제8차	2019. 07. 25.	위원회 회의실	·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개최(안) · 향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방향
제9차	2019. 08. 09.	위원회 회의실	· 도서관 정책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제10차	2019. 09. 03.	위원회 회의실	· 도서관 정책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제11차	2019. 09. 24.	위원회 회의실	· 도서관 정책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개최(안)
제12차	2019. 11. 25.	위원회 회의실	· 향후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운영 방향

제1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8. 5. 29.)에서는 소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역할,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한 정책개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상회복과 독립성 확보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각 소위원회별 현안과 관련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가 함께 검토하는 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도서관의 개념과 비전 제시 및 건축 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무기구 구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8. 8. 10.)에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거버넌스 분야 정책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제2차 계획과 차별성 있는 정책과제가 발굴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거버넌스 분야를 어느 정도까지 다루야 하는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지역대표 도서관의 역할 강화와 지역대표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의 모색, 도서관 생태계의 혁신 전략을 위한 저작권·출판계 등과의 협력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제3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8. 10. 12.)에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중간보고(2018. 10. 16.)를 위한 사전검토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제2차 계획과 달라진 점과 특징이 무엇인지 등이 부각되어야 하고,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홍보 슬로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위원회 차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4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8. 11. 20.)에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과 정책과제(안)이 논의되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을 통한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정되어 있는 위원회 워크숍(2018. 11. 29. ~ 11. 30.)에서 비전과 정책과제를 확정하기로 논의되었다.

제5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9. 3. 8.)에서는 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정책포럼 계획(안) 및 위원회 차원의 도서관정책 TF 운영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포럼의 제목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비전인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으로, 부제는 ‘도서관과 함께 포용사회로’ 확정하고 2019년 4월 19일(금) 14:00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기로 논의되었다. 또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점검과 사서 양성기관 실태 점검을 위한 위원회 차원의 TF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6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9. 4. 25.)에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2019년도 추진실적 점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수립된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개선 보완하여 2019년도 추진실적부터 바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점검 방법에 대한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0년도에 안착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7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9. 4. 29.)에서는 도서관·독서·출판계의 상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도서관·독서·출판정책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개편 때마다 도서관과 독서, 출판정책이 서로 다른 국으로 편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책 문화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간 연계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도서관을 매개로 하는 책 문화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혁신 전략 추진을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중심의 도서관·독서·출판계 간 협력 구조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8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9. 7. 25.)에서는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 개최(안) 및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세미나 제목은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으로 확정하고 세미나는 2019년 10월 17일(금) 9:00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기로 논의되었다. 도서관계 대표행사인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위원회의 정책과제를 도서관 현장과 공유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6기 위원회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9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9. 8. 9.)에서는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도서관 정책 및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부 논의에 앞서 범부처적 행정기구로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초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10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9. 9. 3.)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은 제6기 위원회 임기 중에 위원장의 대통령 보고를 전제로 자료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타 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집필에 참여시키도록 논의되었다.

제11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9. 9. 24.)에서는 이전(제9-10차) 소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의 집필자를 이지연 위원(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박영숙

위원(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이종창 위원(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으로 구성하고 활동조직을 ‘도서관협치전략연구모임’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세미나(제8차 회의 참고)에서 ①정윤희 위원(출판저널 대표)이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도서관·독서장책 협력방안’을 ②이지연 위원(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미래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전략’을 ③이상복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장(대진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가칭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상과 과제’를 발제하기로 하였으며, 세미나의 사회와 좌장은 고영만 남북교류소위원장(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진행하기로 논의되었다.

제12차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회의(2019. 11. 25.)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도서관협치전략연구모임’에서 논의 중인 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및 도서관발전을 위한 실행과제(안)을 제5차 전체회의(2019. 12. 18.)에서 보고하기로 논의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과제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구체화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제7기 위원회부터는 위원회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안)이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총 4회의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2-2-2>과 같다.

표 2-2-2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18. 06. 08.	국립중앙도서관 6층 소회의실	·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추진과제
제2차	2018. 07. 02.	국립중앙도서관 6층 대회의실	· 도서관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현황 · 대학도서관의 전자저널 구독 현황
제3차	2018. 08. 28.	국립중앙도서관 6층 대회의실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인력 분야 정책과제(안) 검토
제4차	2019. 03. 25.	위원회 회의실	· 향후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운영 계획 · 국가차원의 연구정보 인프라 체계 구축

제1차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2018. 6. 8.)에서는 소위원회의 추진과제 설정에 관한 논의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서관법·제도개선 TF 구성안이 논의되었다. 도서관법령상 30년이 경과된 사서배치기준의 개정이 시급하며,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사서와 사서교사 등 학교의 전문 인력 배치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현장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와의 협력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차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2018. 7. 2.)에서는 도서관법 개정 추진현황과 대학도서관의 전자저널 구독 현황 등이 논의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서배치기준의 개정을 포함한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7. 4.~12. 3.)’를 추진 중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별도 TF 운영보다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자고 논의되었다. 대학도서관의 전자저널 구입비가 매년 7~10%씩 인상되고 자료구입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학이 전자저널 구입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정보 접근의 불평등 해소와 학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차원의 법·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논의되었다.

제3차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2018. 8. 28.)에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사서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정책과제(안)이 논의되었다. 전통적인 사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직무 분석을 통한 새로운 사서의 역할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황 파악조차 안 되어 있는 전문도서관과 병원도서관 사서의 역할도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선언적이라도 언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4차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2019. 3. 25.)에서는 2019년 소위원회 운영 계획과 국가차원의 연구정보 인프라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회 계류 중인 도서관법 전부개정안(도종환의원발의, '17.2.7.) 추진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보고 받아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위원회 의견을 반영시켜야 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필요사항은 별도 검토하여 위원회의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기업 등이 구독·서비스하고 있는 핵심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DB)의 국가라이선스 확보(제2차 회의 참고) 및 대국민 서비스 추진 계획(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국회와 교육부·기획재정부 등에 제안하자고 논의되었다.

3.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총 4회의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2-2-3>과 같다.

표 2-2-3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18. 05. 14.	노스테라스빌딩 4층	· 4차산업혁명 대응 도서관 서비스 전략
제2차	2018. 07. 20.	노스테라스빌딩 4층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추진과제 검토
제3차	2019. 03. 29.	티원 서울역점	· 2019년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운영 계획
제4차	2019. 11. 21.	노스테라스빌딩 4층	·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현안 및 성과

제1차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2018. 5. 14.)는 4차산업혁명 대응 도서관 서비스 전략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시티 등의 환경에서 미래도서관(가칭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개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서관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 중 4차산업혁명 기술로 해결 가능한 정책 영역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액세스(OA) 학술유통 플랫폼 개발’ 연구가 절실하기에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보강과 4차산업혁명 적용 우수기관 방문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차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2018. 7. 20.)에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추진과제가 논의되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기술요소가 포함된 무인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실험적 고찰을 통해 도서관의 서비스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되었다. 또한 도서 추천과 글쓰기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로봇참고사서의 도입, 미래도서관(가칭 스마트도서관) 운영 모델연구, AR·VR Book 등 실감형 콘텐츠 확충, 디지털인문학서비스 구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3차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2019. 3. 29.)에서는 2019년 소위원회 운영 계획이 논의되었다. 스마트시티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관련 세미나, 인공지능 관련 연구, 스마트도서관 구축 모델 및 가이드라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스마트도서관의 콘텐츠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으로 지금이 저작권과 출판, 독서계와의 긴밀한 협력과 다양한 논의구조가 가능한 때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4차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회의(2019. 11. 21.)에서는 소위원회 명칭 변경(예: 미래 도서관 준비 소위원회 등)의 검토와 위원장에게 제안할 소위원회의 4대 추진과제가 논의되었다. ①도서관 오픈엑세스(OA) 확산 분위기 조성, ②생활SOC와 연계한 스마트도서관 인프라 확대, ③4차산업혁명 아젠다를 반영한 도서관시스템 정보화 추진 ④오디오북 제작·서비스 등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서비스체계 재정비 지원이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4.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총 2회의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2-2-4>과 같다.

표 2-2-4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18. 06. 05.	리베라호텔	· 국가차원의 지식정보격차해소 방안 마련
제2차	2018. 08. 09.	국립중앙도서관 6층 소회의실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정보불평등 분야 정책과제 검토

제1차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2018. 6. 5.)에서는 국가차원의 지식정보격차해소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동안 장애인·노인·다문화 등 대상별 자료와 프로그램 지원에 치중되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지식정보격차해소라는 큰 틀의 정책에서 대상별 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식정보격차해소 통합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격차’의 개념을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학력 등 다양한 요인의 결합에 따라 다층적이고 구조화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현실성·타당성을 갖춘 정제된 사업(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제2차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회의(2018. 8. 9.)에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정보불평등 분야 정책과제가 논의되었다. 연구진(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정보불평등 지원 대상 11개 계층(기초생활수급자·환자및보호자·다문화이주민·북한이탈주민·교도소수용자·장애인·농산어촌·노인·군인 등)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계층을 구분할 경우 중복 또는 누락되는 지원대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지원 대상의 계층화가 아닌 불평등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총 2회의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안건은 <표 2-2-5>과 같다.

표 2-2-5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18. 05. 31.	설기온(광화문)	· 남북교류소위원회의 단기, 중기 과제 과제추진 방향
제2차	2019. 04. 11.	차일(광화문)	· 남북교류소위원회 활동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제1차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2018. 5. 31.)에서는 남북교류소위원회의 단기, 중기 과제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다. 단기 과제로는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2018. 10. 24.~10. 26./ 강원도 정선) 북측 인사 초청 및 ‘제84회 세계도서관정보대회(2018. 8. 24.~8. 3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남북 공동 발표’ 추진이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도서관협회가 위원회를 협조하여 언론 발표 및 방북 신청 업무를 진행하기로 논의되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정부의 남북교류 현황과 계획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남북도서관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논의되었다. 중기 과제로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당시 신기남 조직위원장 등이 2005년 방북해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최희정 인민대학습당 총장 등을 면담하고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합의와 함께 ‘남북도서관교류사업’으로 제시했던 사업의 재추진이 논의되었다. ‘남북도서관교류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도서관 협력방안 워크숍
- 동북아 도서관 자료 교류 협력 국제 심포지엄
- 남북도서관 협력 기반 가치 ‘통일분류법(목록규칙)’ 공동연구
- 남북도서관 고전적 및 소장 목록 조사·교환
- 북한도서관 소장 주요 고전적 전시회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이동도서관 지원
- 남북도서관 협력 백서 발간 사업

제2차 남북교류소위원회 회의(2019. 4. 11.)에서는 소위원회의 활동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다. 2018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로 빠지면서 추진되지 못했던 소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2019년 과제로 재설정하기로 논의되었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가칭 '남북교류 추진단'을 구성하여 남북도서관 교류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도서관계의 남북교류 관련 칼럼이나 기획 기사를 게재하는 등 향후 교류 협력 재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논의되었다.

제3절 소위원장 회의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총 5회의 소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소위원장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은 <표 2-3-1>과 같다.

표 2-3-1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장 회의

회차	날짜	장소	주요 내용
제1차	2018. 05. 01.	위원장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상 확립 방안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방향 및 운영방안
제2차	2018. 07. 10.	국립중앙도서관 소회의실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을 위한 TF 구성·운영방향
제3차	2019. 02. 25.	위원회 회의실	· 2019년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 운영 예산안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모임 주제 선정 ·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추진현황 공유
제4차	2019. 07. 11.	위원회 회의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세미나 주제 선정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자침(안) 검토
제5차	2019. 11. 29.	위원회 회의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4대 긴급사안 및 10대 과제 점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공유 및 향후 계획 ·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방향

1. 제1차 소위원장 회의(2018. 5. 1.)

제1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상 확립 방안이 논의되었다.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와 사무 공간의 마련,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 인력 및 예산의 지원 등이 급선무라는 의견과 도서관 현장의 다양한 의견청취 및 언론홍보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방향 및 운영방안이 논의되었다. 연구수행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종합적인 내용을 관장하더라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위원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들과 함께 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제2차 소위원장 회의(2018. 7. 10.)

제2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정책개발을 위한 TF 구성·운영 방안이 논의되었다.

우선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소위원회를 연동하여 총 4개의 포럼(도서관거버넌스, 도서관서비스, 도서관인력, 정보불평등)을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이 논의되었다.

- 도서관거버넌스(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남북교류소위원회): 2019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2019년 8월, 그리스 아테네) 참석 시 북한 대표팀과 교류 창구의 마련과 제56회 전국 도서관대회(2019년 10월, 부산 벡스코)에 북한 대표팀을 초청
- 도서관서비스(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빅데이터 활용, 큐레이션 등 서비스정책 개발
- 도서관인력(도서관법·제도소위원회+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도서관인력 기준의 타당성과 근거 마련을 통한 사서배치기준의 현실화
- 정보불평등(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장애인 등 지식정보격차해소 방안 마련

또한 도서관계 주요 이슈에 따른 소위원회의 논의주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도서관정책기획소위원회: 도시재생과 도서관 및 위원회 사무기구 신설 관련
- 도서관법·제도개선소위원회: 국가R&D와 도서관 및 대학·학교도서관 법제 개선
- 4차산업혁명적용소위원회: 디지털정보서비스 진흥 관련
- 지식정보격차해소소위원회: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지식정보격차해소 방안 마련

3. 제3차 소위원장 회의(2019. 2. 25.)

제3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2019년도 위원회 회의 운영 예산안, 위원회 정책포럼 주제 선정,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추진현황이 논의되었다.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회의비 등 운영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6기 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정책 포럼을 4월에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에서 도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월 28일 작가회의와 출판계 중심의 국회 토론회가 우상호의원실 주관으로 추진되는 등 위원회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제4차 소위원장 회의(2019. 7. 11.)

제4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위원회 세미나 주제 선정 및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이 논의되었다. 세미나는 제56회 전국 도서관대회(2019년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도서관대회의 주제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을 포괄하는 주제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제6기 위원회의 성과를 통한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행계획 수립지침(안)은 위원별 검토의견을 7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첫 번째 시행계획의 수립이므로 작성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5. 제5차 소위원장 회의(2019. 11. 29.)

제5차 소위원장 회의에서는 위원회 4대 긴급사안 및 10대 과제 점검, 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공유 및 향후 계획, 제7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방향이 논의되었다.

위원회 4대 긴급사안 및 10대 과제는 지난 2018년 4월 9일 제6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각계에 제시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대 긴급사안: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의 위상 확립, 사무 공간 확보, 사무기구 구성, 위원회 지원 강화
- 10대 과제: 실질적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강력한 집행 점검, 도서관법 개정,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 도서관의 인적·물적 기반 확충, 지역격차 해소, 전문 인력 배치기준 개선, 사서 자격제도 개선, 도서관 남북교류, 국회와 도서관계의 소통, 위원회 위상 강화

4대 긴급사안과 10대 과제는 위원회 조직과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무공간의 확보(2018년 9월, 국립중앙도서관 7층)와 사무기구의 구성(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2(사무기구) 신설 및 사무국 직원 9명 확보), 위원장 수행 지원 등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내용이 제6기 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그간 논의된 내용을 소위원회별로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제7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의 4대 정책과제(개인의 가능성 발견, 공동체 역량 강화, 사회적 포용 실천, 미래를 여는 도서관) 추진을 위한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4절 3부 국립도서관장 간담회

1. 추진배경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과 3부 국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관장이 주기적으로 만나 국가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논의하고, 국립도서관장들의 상호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로 제1기 위원회부터 지속 추진되어 왔다.

3부 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장, 국회도서관장, 법원도서관장이 참석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이 참석하였다.

2. 추진경과

간담회는 2018년 2회, 2019년 3회 총 5회가 개최되었으며, 도서관 관련 현안사항 논의 및 국립도서관별 행사와 협조 요청 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3. 성과 및 의의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이 참여하여 위원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도서관정책을 설명하는 등 정책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3부 국립도서관은 도서관 현안의 공유를 통해 국립도서관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제6기 위원회까지는 기관장 간담회의 성격으로 한정되었으나 차기 위원회부터는 간담회의 주요 논의 결과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논의 주제 및 참석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 장 위원회 활동사항

- 제 1 절 제 3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2023) 수립
- 제 2 절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
- 제 3 절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정책 포럼
- 제 4 절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세미나
- 제 5 절 국제도서관연맹(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 제 6 절 국내 도서관 현장 소통 강화

제1절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립**1. 추진배경**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종류별 도서관을 아우르는 도서관에 관한 기본계획이자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원계획 등의 준거가 되는 실천적 계획이며, 과제의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복수 부처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계획이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도서관법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을 통해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현장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2. 추진경과

위원회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이하 ‘3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의 추진뿐 아니라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국민·도서관계의 정책제안 공모 등 각종 의견수렴 과정을 펼쳤다. 세부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18.4~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대국민·도서관계 정책제안 의견수렴(‘18.6~8월, 총 210건)
- 제3차 계획 정책방향 현장 공유 설명회(‘18.10.25, 전국도서관대회)
- 제3차 계획(안) 확정을 위한 위촉직 위원 워크숍(‘18.11.29~11.30)
- 제3차 계획(안) 관계 부처 및 단체 등 의견 수렴(‘18.12.7~12.17)
- 제3차 계획(안) 대국민 공청회(‘18.12.12)
- 제3차 계획(안) 심의·확정(‘18.12.21)
- 제3차 계획 수립·발표(‘19.1.23)

특히 제3차 계획(안) 마련 과정부터 제6기 위원회 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포럼 및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3차 계획 포럼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은 <표 3-1-1>, <표 3-1-2>와 같다.

표 3-1-1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포럼위원

분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위원장	이상복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위원회 위원
도서관커넥션	곽철완	강남대학교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수	
	곽승진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하부용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단장	중앙부처
	이은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개포도서관	관장	공공도서관
	조해민	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국립도서관

분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도서관서비스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협·단체
	장덕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박근화	한국대학교서관연합회	사무총장	대학교서관
	오정훈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기술원	전문도서관
	이덕주	송곡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도서관인력	김홍렬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권나현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심효정	한국도서관협회	본부장	협·단체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	부장	공공도서관
정보격차	노영희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용완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장보성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무관	장애인도서관

표 3-1-2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자문위원

분과	성명	소속	직위	비고
작은도서관	정기원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협·단체
	박소희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변현주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사무국장	
공간	이철재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	
출판	곽미순	대학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정선인	대학출판문화협회	과장	
남북교류	송승섭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곽동철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학교서관	오세훈	한국대학교서관연합회 교육출판사업단	단장	협·단체
도서관인력	윤명희	경기도사서협의회 / 파주중앙도서관	회장 / 관장	공공도서관
	오지은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 광진정보도서관	공동대표 / 관장	공공도서관
	나병준	충남도서관	관장	지역대표도서관
	조수금	부산광역시립 구덕도서관	사서	공공도서관
	이승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학교도서관
	이수아	한국학교사서협회	사무차장	학교도서관
	박근화	한국대학교서관연합회	사무총장	포럼위원

3. 주요 내용

제3차 계획은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촉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참여한 전체회의(2018.12.21.)의 심의·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2019년 1월 23일 언론에 발표되었다.

국정기조에 부합한 제3차 계획의 핵심가치를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으로 제시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비전실현을 위한 4대 전략방향,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제3차 계획의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는 <표 3-1-3>과 같다.

표 3-1-3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

4대 전략방향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 소통·토론행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	·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확대 ·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	· 도서관 이용자 조사·연구 강화 ·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정보서비스 강화 · 온라인 개방형 학습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 생애초기 독서운동 시행 확대 · 자기주도, 교과연계 학습서비스 강화 ·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생활 밀착형 전문정보 서비스 강화 · 국가도서관 정보서비스 강화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분권형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체계 구축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	·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교류협력의 플랫폼 기능 강화	·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학교도서관 교육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 대학도서관 지식공동체에서 역할 강화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 정보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 정보 및 매체이용 교육 강화 ·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공간의 개방성 확대	·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 사회문화서비스와 연계 도서관서비스 개발 및 확대 ·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4대 전략방향	13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도서관 운영체계의 질적 제고	· 도서관 사서 인력의 지속적 확대 · 사서 재교육 및 조직역량 강화 · 도서관 법·제도·평가의 현실적 개정 추진
	도서관 협력체계의 강화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 도서관 국제교류의 강화
	도서관 자원의 공유기반 구축	· 오픈액세스(open access) 체계 구축 및 확대 · 디지털 자료의 확대 지속
	도서관 인프라 확대	·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 스마트도서관 모델 구축 및 시범연구

제3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도서관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 성장의 든든한 지원기관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포용 국가의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과제의 추진이 기대된다.

그림 3-1-1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립



제3차 계획(안) 중간보고회 ('18.10.16.)



제3차 계획(안) 위촉직 위원 워크숍 ('18.11.29~30.)



제3차 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18.12.12.)



제3차 계획 수립·발표 ('19.1.23.)

제2절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

1. 추진배경

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007년 공공·대학·학교·병영·교도소·전문도서관 등 6개 관종 56개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완된 평가지표로 2008년부터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본격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서관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한 정보서비스 환경 개선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도서관의 전년도 운영실적을 진단하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크게 전략적 평가지표 개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도서관 이미지 형성이라는 평가 전략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변하는 도서관 현장을 반영하는 전략적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제시
- 이용자 지향형 도서관서비스 관리를 통한 이용자만족도 제고
- 도서관 마케팅 및 홍보 강화로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평가포상은 2008년 정부 및 장관 표창이 도서관 단체상으로 배정되었고 2016년부터는 위원장 특별상이 신설되어 현재까지 매년 우수도서관에 대한 표창이 수여되고 있다. 시상식은 2009년부터 전국 도서관대회의 개막식 부대행사로 실시되고 있어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에 대한 홍보 효과가 더욱 높아졌다.

2. 평가지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 따른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는 위원회의 심의(’15.5.1)를 거쳐 2016년(’15년 도서관 운영실적)부터 2019년(’18년 도서관 운영실적)까지 활용되었다.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총 5개 관종의 5개 영역별 90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지표의 세부 내용은 <표 3-2-1>와 같다.

표 3-2-1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

평가 영역	공공도서관 (23개 지표)		학교도서관 (31개 지표)		병영도서관 (8개 지표)			교도소도서관 (8개 지표)		전문도서관 (20개 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사단급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미만	이상												
도서관 경영	계획·정책연계 (정성100)	200	경영계획	4	계획실행		10	교류·협력	10	계획적인 운영	6								
	교류·협력	60	홍보·마케팅	3	교류·협력	10	10				운영성과 관리	6							
			협력	4							도서관 위상	3							
			예산	6							운영의 혁신 (정성)	10							
인적 자원	인적자원	145	인적자원 배치	5	인적자원	10	10	인적자원	20	사서의 규모	3								
			인적자원 전문성	7						직원의 전문성	4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3						직원의 교육훈련	3								
시설 환경	시설	30	시설 접근성	4	시설의 편의성	10	10	시설의 편의성	10	도서관 면적	2								
			시설·설비 적절성	6									이용자 시설	3					
													전산 환경	5					
정보 자원	장서	165	장서현황	6	장서	20	20	장서	30	장서개발 정책	4								
	정보자원 협력	55	장서최신성	5	대출	10	10					자료구입 예산	2						
			장서구성 적절성	7											기본자료 수집	2			
																		자료수집 확대	6
도서관 서비스	정보서비스	115	이용 접근성	4	독서 및 도서관행사	20	15	대출	10	도서관 이용	10								
	독서·문화	90	자료이용 현황	9	독서활동 사례(정성)	20	15			독서활동 (정성 15)	20	이용자 지원	8						
	정보격차해소	40	정보활용교육	10									이용자 교육	4					
	혁신사례 및 우수성(정성)	100	독서교육	11													대외 협력	3	
																	교육활성화 노력(정성)	6	서비스 개선(정성)
소계	정량 (800) 정성 (200)	1,000	정량 (94) 정성 (6)	100	정량 (80/85) 정성 (20/15)	100	100	정량 (85) 정성 (15)	100	정량 (80) 정성 (20)	100								

3. 평가방법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실사평가, 최종심의 총 4단계의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평가 절차의 운용은 각 관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세부 단계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량평가(1차) : 평가 대상기관 실적입력(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평가위원 서면평가 후 1차 점수 부여 *공공도서관 외 관종은 12차 평가 동시 추진
- 정성평가(2차) : 1차 정량평가 우수기관 대상으로 정성평가
- 실사평가(3차) : 1·2차 평가 실적 우수기관(수상기관 약 2배수 선정) 대상으로 현장평가
- 위원회 심의(4차) : 평가결과 종합 후 평가위원회 최종심의

4. 주요 내용

1) 2018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

2018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6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도서관의 지난 1년간('17.1.1~12.31) 운영실적을 평가하되, 학교도서관의 경우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였다. 주요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8 평가위원회 구성('18.5.15) *위원 명단 <표 3-2-2>
- 행정안전부 포상규모 협의('18.6~9)
- 2018 평가계획수립 및 관계부처·지자체 등 계획 통보('18.5.23)
- 평가 대상기관 실적입력('18.6.8~7.6) / 평가시스템 활용
- 1차 정량평가 및 2차 정성평가('18.7)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 3차 실사평가('18.8.6~8.24) / 서면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대상 약 2배수
- 4차 우수도서관 최종심의 평가('18.9.7) / 평가위원회 개최 *우수도서관 포상대상 확정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대상기관 추천('18.9.24)
- 평가결과(관종별, 지표별 등급) 공개 및 2018 우수도서관 보도자료 배포('18.10.23)
- 2018 우수도서관 시상 및 포상('18.10.24)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강원 하이원리조트)

표 3-2-2 2018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평가위원 (이름 가나다순)

구분	성명	소속	비고
공공도서관 (15명)	이상복 (평가위원장)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위원회 위원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곽승진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승민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배경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용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홍렬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현주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위원회 위원
	최상희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김신영	경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장인호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정미	인덕대학교 도시환경디자인과 교수	위원회 위원
	박영숙	네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위원회 위원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김수정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중앙부처	
학교도서관 (10명)	서혜란 (분과위원장)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위원회 위원
	송기호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김종성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진수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장대필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상수	행복한아침도서관 이사장	
	권혁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박근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총장	
	조예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구사	중앙부처
병영·전문·교도 소도서관 (6명)	고영만 (분과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위원회 위원
	심원식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심효정	한국도서관협회 본부장	
	이순란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노채정	국립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중령	중앙부처
	김광희	법무부 사회복귀과 교정관	

2018년에는 총 2,399개관이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총 48개 우수도서관이 확정되었다. 종류별 도서관의 참여현황과 우수도서관 명단은 <표 3-2-3>, <표 3-2-4>와 같다.

표 3-2-3 2018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참여 현황

(단위: 개관)

구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전문도서관	계
대상기관	1,006	11,625	1,964	52	610	15,257
참여기관	1,006	906	400	52	35	2,399
참여방법	전수	공모	공모	전수	공모	

표 3-2-4 2018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연번	훈격	관종	단체명(지역)
1	대통령표창 (2)	공공 (1)	광진정보도서관(서울)
2		학교 (1)	대구월배초등학교(대구)
3	국무총리표창 (7)	공공 (4)	창원도서관(경남)
4			부천시립원미도서관(경기)
5			부천시립상동도서관(경기)
6			김포시 통진도서관(경기)
7		학교 (2)	대구성동초등학교(대구)
8		병영 (1)	의왕부곡중학교(경기)
9		전투병과학교(경남)	
1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표창 (3)	학교 (3)	삼일초등학교(울산)
11			탄현중학교(경기)
12			소래고등학교(경기)
1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33)	공공 (14)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서울)
14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서울)
15			평택시립장당도서관(경기)
16			금천구립시흥도서관(서울)
17			조원도서관(서울)
18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경기)
19			청주시립오송도서관(충북)
20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대구)
21			마포구립서강도서관(서울)
22			송파글마루도서관(서울)
23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서울)

연번	훈격	관종	단체명(지역)	
24			대구광역시립등부도서관(대구)	
25			원주시립도서관(강원)	
26			가람도서관(경기)	
27		학교 (10)	대전중원초등학교(대전)	
28			덕계초등학교(경남)	
29			이의초등학교(경기)	
30			부천중앙초등학교(경기)	
31			성곡중학교(경기)	
32			오금중학교(서울)	
33			성남여자중학교(경기)	
34			영일고등학교(서울)	
35			서울금북초등학교(서울)	
36			송문고등학교(서울)	
37		병영 (5)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38			1공병여단 109공병대대(경기)	
39			제11전투비행단(대구)	
40			진해기지사령부(경남)	
41			제3공수특전여단(경기)	
42		교도소 (1)	홍성교도소(충남)	
43		전문 (1)	지식재산전문도서관(서울)	
44		광역지자체 (1)	경기도	
45		시도교육청 (1)	부산광역시 교육청	
46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특별상 (3)	전문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47			기초지자체 (2)	부산광역시 북구
48				경기도 광명시

그림 3-2-1 2018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



(대통령표창) 광진정보도서관 전경사진



(대통령표창) 광진정보도서관 책 읽는 엄마학교



(대통령표창) 대구월배초등학교 꼬마독서방



(대통령표창) 대구월배초등학교 도서관 활용수업



2018 우수도서관 시상식 ('18.10.24.)

2) 2019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

2019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6월 9일부터 9월 7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도서관의 지난 1년간('18.1.1~'12.31) 운영실적을 평가하되, 학교도서관의 경우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였다. 주요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9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안) 확정('19.5) *위원 명단 <표 3-2-5>
- 사전설명회 개최 및 평가 대상기관 실적입력(평가시스템 활용)('19.6)
- 1차 정량평가 및 2차 정성평가 실시, 점수공개 및 이의신청('19.7)
- 3차 실사평가('19.8) / 서면평가 결과 우수기관 *포상대상 약 2배수
- 4차 우수도서관 최종심의 평가('19.9.2) / 평가위원회 개최 *우수도서관 포상대상 확정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대상기관 추천('19.9)
- 평가결과(관종별, 지표별 등급) 공개 및 2019 우수도서관 보도자료 배포('19.10.11)
- 2019 우수도서관 시상 및 포상('19.10.16)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부산 벅스코)

표 3-2-5 2019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평가위원 (이름 가나다순)

구분	성명	소속	비고
공공도서관 (15명)	이상복 (평가위원장)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위원회 위원
	곽승진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홍렬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노동조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배경재	동덕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재윤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현주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위원회 위원
	장인호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조용완	대구가톨릭대 도서관학과 교수	
	차미경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황금숙	대림대학교 아동문헌정보과 교수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강연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관	
	류은영	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중앙부처
	조혜린	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	

구분	성명	소속	비고
학교도서관 (10명)	이지연 (분과위원장)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위원회 위원
	김종성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송기호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정진수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권혁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	
	한기호	학교도서관저널 대표이사	
	한상수	행복한아침독서 이사장	
	김희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관	중앙부처
	이시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관	
	조예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연구사	
병영·전문· 교도소도서관 (6명)	송승섭 (분과위원장)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심효정	한국도서관협회 본부장	
	김상규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사무국장	
	최익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관	중앙부처
	남안나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사무관	
	김광희	법무부 사회복귀과 교정관	

2019년에는 총 2,315개관이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총 51개 우수도서관이 확정되었다. 종류별 도서관의 참여현황과 우수도서관 명단은 <표 3-2-6>, <표 3-2-7>과 같다.

표 3-2-6 2019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참여 현황

(단위: 개관)

구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전문도서관	계
대상기관	1,038	11,644	1,884	52	609	15,227
참여기관	1,038	804	378	52	43	2,315
참여방법	전수	공모	공모	전수	공모	

표 3-2-7 2019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우수도서관

연번	훈격	관종	단체명(지역)
1	대통령표창 (2)	공공 (1)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서울)
2		학교 (1)	민족사관고등학교(강원)
3	국무총리표창 (7)	공공 (4)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서울)
4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서울)
5			송파글마루도서관(서울)
6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서울)
7		학교 (2)	성남수정초등학교(경기)
8			대흥중학교(경기)
9			병영 (1)
1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표창 (3)	학교 (3)	대전송강초등학교(대전)
11			대전봉명중학교(대전)
12			홍익사대부속여고(서울)
1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33)	공공 (14)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서울)
14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대구)
15			부천시립꿈빛도서관(경기)
16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서울)
17			대전학생교육문화원부설 산성도서관(대전)
18			서울특별시교육청강동도서관(서울)
19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서울)
20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서울)
21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부산)
22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서울)
23			인천광역시립수봉도서관(인천)
24			해남 군립도서관(전남)
25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부산)
26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전남)
27		학교 (10)	상탑초등학교(경기)
28			진천초등학교(대구)
29			동도초등학교(대구)
30	대전오류초등학교(대전)		

연번	훈격	관종	단체명(지역)	
31			백마중학교(경기)	
32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전남)	
33			지세포중학교(경남)	
34			여수여자고등학교(전남)	
35			이포초등학교(경기)	
36			하안북중학교(경기)	
37		병영 (5)	육군 제2작전 사령부(대구)	
38			육군 제5포병여단 752포병대대(경기)	
39			공군 교육사령부(경남)	
40			해군 포항병원(경북)	
41			육군 제35사단 기동대대(전북)	
42		교도소 (1)	공주교도소(충남)	
43		전문 (1)	통계청 나라샘도서관(서울)	
44		광역지자체 (1)	전라남도(전남)	
45		시도교육청 (1)	강원도교육청(강원)	
46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특별상 (6)	학교 (1)	송죽초등학교(경기)
47			병영 (1)	육군 수방사 56사단 정보통신대대(경기)
48			교도소 (1)	경북북부 제2교도소(경북)
49			전문 (1)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전문도서관(서울)
50			기초지자체 (2)	서울특별시 중구(서울)
51				전라남도 순천시(전남)

그림 3-2-2 2019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추진



2019 도서관 운영평가 사전설명회 ('19.6.14.)



(대통령표창)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독서동아리



2019 우수도서관 시상식 ('19.10.16.)



(대통령표창) 민족사관고등학교 만경도서관



2019 우수도서관 시상식 ('19.10.16.)

제3절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정책 포럼

1. 추진배경

위원회는 제6기 위원회의 출범(‘18.4.9) 1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4월 19일에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의 주제는 2019년 1월 23일에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이하 ‘3차 계획’)의 비전인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으로 선정하고, 위원회 위원과 도서관현장이 함께 참여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3차 계획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2. 주요 내용

포럼의 주요 내용은 3차 계획의 핵심가치인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도서관 정책 담당자와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28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의 세부 일정과 주요 내용은 <표 3-3-1>, <표 3-3-2>와 같다.

표 3-3-1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정책 포럼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4:30 ~ 14:00	30'	등록	자료집 배포 등
14:00 ~ 14:05	5'	개회 및 인사말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14:05 ~ 14:10	5'	축사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14:10 ~ 14:30	20'	발제 / 사람에 대한 포용성	박영숙 위원회 위원/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14:30 ~ 14:50	20'	발제 / 공간의 혁신성	윤택용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부사장
14:50 ~ 15:10	20'	발제 / 정보의 민주성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5:10 ~ 15:20	10'	휴식	
15:20 ~ 16:00	40'	종합토론	이상복 위원회 위원/ 대진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좌장)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사업부장 최준혁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정현태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장
16:00 ~		폐회	

표 3-3-2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정책 포럼 발제 및 토론 개요

핵심가치 (주제)	발제 및 토론자	발제 및 토론 제목
사람에 대한 포용성	박영숙 (위원회 위원/느티나무재단 이사장)	도서관, 시민이 탄생하는 제3의 공간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사람에 대한 포용성'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생각
공간의 혁신성	윤택용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부사장)	경계의 모호성
	최준혁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도서관의 미래지향점과 방향성
정보의 민주성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기획처장)	문화적 권리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새로운 비전
	정현태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장)	포용사회 실천과제로서의 도서관의 민주성

포럼에 앞서 신기남 위원장은 “도서관이 포용 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먼저 변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이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의 청사진이 되어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제1차관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3차 계획의 의의를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과 함께 포용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 ‘사람에 대한 포용성’과 관련해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은 “도서관은 정보와 지적 활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아우르고, 시민의 힘을 키워나가는 곳”이라고 강조했고,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은 “사람에 대한 포용성이란 지역 자원과 협업해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공간의 혁신성’과 관련해 윤택용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부사장은 본인이 건축에 참여한 울산시립도서관을 사례로 들며 지역 사회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설명했다. 최준혁 동명대 교수는 도서관의 공간을 계획할 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정보의 민주성’과 관련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도서관을 문화적 활동의 총체를 지원하는 장소로 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정현태 한국도서관 협회 사업본부장은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제안했다.

아울러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박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허부열 법원도서관장, 지역별 도서관장, 도서관 관련 학계 및 협·단체장, 도서관 업무 담당자 등이 포럼에 참석하여 도서관이 우리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함에 대해 고민했다.

그림 3-3-1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 정책 포럼(2019. 4. 19.)



제4절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세미나

1. 추진배경

위원회는 2019년 10월 8일 위원회의 사무기구 법제화(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2 신설) 추진 등 최근 위원회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도서관현장과 함께 미래 도서관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추진하였다.

세미나는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행사기간 중인 2019년 10월 17일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다.

2. 주요 내용

세미나는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도서관-독서정책 협력 방안', '미래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전략', '국가도서관위원회(가칭)의 위상과 과제'에 대한 위원회 위원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도서관 정책 담당자와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의 세부 일정과 주요 내용은 <표 3-4-1>과 같다.

표 3-4-1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세미나 세부 일정

시간	내용
9:00 ~ 9:20	20' ✓ 등 록
9:20 ~ 9:30	10' ✓ 인사 말 · 신 기 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9:30 ~ 10:30	60' ✓ [발제 1]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도서관-독서정책 협력 방안 · 정 윤 희 위 원(출판저널 대표) ✓ [발제 2] 미래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전략 · 이 지 연 위 원(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0:30 ~ 10:40	10' 휴 식
10:40 ~ 11:00	20' ✓ [발제 3] 국가도서관위원회(가칭)의 위상과 과제 · 이 상 복 위 원(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1:00 ~ 11:50	50' ✓ 질의응답 및 플로어 토론
11:50 ~ 12:00	10' ✓ 마무리 및 폐회

포럼에 앞서 신기남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통령이 관할하는 도서관 정책의 최고기관으로 그 이름에 걸맞은 위상과 과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첫 번째 주제,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도서관-독서정책 협력 방안’과 관련해 정윤희 출판저널 대표는 “출판·도서관·독서정책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출판-도서관-독서정책 간의 제도적 협력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미래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전략’과 관련해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서관이 4.0 기술 접목의 핵심기반 시설이 되어야 하며, 도서관은 본연의 기능인 콘텐츠 파워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국가도서관위원회(가칭)의 위상과 과제’와 관련해 이상복 대진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소극적 하향식 정책개발에 치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서관 현안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제자 외에도 지역별 도서관장, 도서관 관련 학계 및 협·단체장, 도서관 업무 담당자 등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미래사회에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그림 3-4-1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세미나(2019. 10. 17.)



제5절 국제도서관연맹(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1. 추진배경

신기남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서관정책에 관한 국외 도서관계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이 주관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WLIC)에 참석하였다.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도서관의 활동 전반에 걸친 국제적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조사 및 연구 개발 등을 진흥시키기 위해 1927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약 150개국 1,5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2007년부터 국제도서관연맹(IFLA) 연차총회 및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참석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2018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2018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도서관을 변화시키다, 사회를 변화시키다(Transform Libraries, Transform Societies)’라는 주제로 전 세계 110개국 3,500명이 넘는 사서와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였다.

신 위원장은 대회기간 중 한국어 참가자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말과 함께 IFLA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8월 27일에는 글로리아 페레즈 살레몬(Glòria Pérez-Salmerón) IFLA 회장과 제럴드 레이트너(Gerald Leitner) IFLA 사무총장 등과의 면담에서 한국(부산)의 2023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유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신 위원장은 또한 같은 날 로이다 가르시아 페보(Loida Garcia-Febo) 미국도서관협회장과의 면담에서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전국도서관대회(강원)에 미국도서관협회장을 초청하고 미국 도서관계 이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박재섭 위원회 위원과 김진묵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이 동석하였다.

2018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IFLA 연차 총회, 분과 상임위원회, 120개의 포스터 세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회기간 중 위원장의 주요 일정은 <표 3-5-1>와 같다.

표 3-5-1 2018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위원장 주요 일정

날 짜	일정	주요 내용
8월 24일(금)	한국어 참가자 모임 (19:0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총 60여명(국립·공공·대학·전문도서관 등 도서관인)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장 · 환영사 : 글로리아 페레스 살메론 IFLA 회장 · 프로그램 :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고려대 중앙도서관 운영사례 발표 등
8월 25일(토)	개회식 (10:3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110개국 3,500여명(IFLA 관계자, 각국 협회원, 도서관인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LA 신임회장 소개 및 그간 성과 보고 · 쿠알라룸푸르 시장 및 조직위원장 환영사, IFLA 회장 개회사, 기조연설 · 2019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그리스 아테네) 발표 · 말레이시아 전통공연 등
	아시아·오세아이나분과 상임위원회 회의 (13:45~1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재난 위험 감소 프로그램 개발 방안 논의 · 중국국가도서관 발표(실크로드 국제도서관 연합 관련) 등
8월 26일(일)	글로리아 페레스 살메론 IFLA 회장 세션 (9:30~1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주제 관련 패널 등 대화 ·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협력, 정보의 융합, 지역사회에서의 리더십 등을 발휘해야 함을 공유
	디지털 세상 관련 분과 (16: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세상에서 접근성 높이기 / 애나 브레진스카 폴란드 독립영화 제작자 · 도서관 디지털 마케팅 현황 / 흥청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사서 등
8월 27일(월)	미국도서관협회장 면담 (15:0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총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위원장, 박재섭 위원회 위원, 김진목 강남대 교수 등 · (국외) 로이다 가르시아 페보 미국도서관협회장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0월 전국도서관대회(강원) 미국도서관협회장 초청 논의 · 도서관과 지적자유 등 미국 도서관계 이슈 논의 등
	IFLA 회장 및 사무총장 면담 (17: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위원장, 글로리아 페레스 살메론 IFLA 회장, 제랄드 레이트너 IFLA 사무총장 등 5명 ✓ 주요내용 : 2023년 WLIC 한국(부산) 유치가능성 등 논의
8월 28일(화)	올해의 공공도서관 발표 (9:30~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공공도서관, 대도시도서관, 도서관건물·설비 3개 분과 합동으로 선정(2018년의 경우, 총 19개국 35개 도서관이 응모) ✓ 2018년 올해의 공공도서관 : School7 Library(네덜란드) · 네덜란드 델 헬더 센터의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근의 지역 극장, 카페, 대학들과의 활발한 협력으로 월 평균 1만 명의 방문자가 찾음
	IFLA 연차총회 (16:15~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랄드 레이트너 IFLA 사무총장 연례보고서 발표 · 의제채택 및 투표 등

날 짜	일정	주요 내용
8월 29일(수)	국가도서관정책 특별관심그룹 (13:45~1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 윈스턴 로버츠 뉴질랜드 국립도서관 수석 고문 ✓ 주제 : 새로운 국가도서관정보정책의 발전으로 얻은 교훈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공식화된 국가정책은 지역사회 및 국가전체의 사고,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 기타 세부정책 등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 공식화된 국가정책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은 공공·민간과의 협력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 · (중동 및 북아프리카) 도서관정보정책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적인 프로그램, 강력한 리더십과 법적지위를 가진 소관 기관 및 협회가 필요, 사회 전체의 공감대 형성 및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강조 · 기타 라틴아메리카(콜롬비아, 페루), 필리핀 국가정책 소개 등
	폐회식 (16:15~1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110개국 3,500여명(IFLA 관계자, 각국 협회원, 도서관인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LA 글로리아 페레스 살메론 회장 폐회사 · IFLA Award 발표 및 시상식(2018 세계도서관대회를 빛낸 참가자들) · 2020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 발표 등
8월 30일(목)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장 면담 및 도서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 위원장, 다토 나피사흐 아마드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장 등 5명 ✓ 주요내용 : 양국 국가도서관 정책 및 협력 방안 논의 등 ✓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연도 : 1956년 · 주요특징 : 1992년 이전한 현재의 도서관 건물과 지붕은 말레이시아의 정체성을 반영하고자 말레이시아 전통모자, 옷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완성된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음 · 소장자료 : 총 5,327,281점(17년 기준) · 이용시간 : 화요일~토요일(10:00~19:00), 일요일(10:00~18:00)

그림 3-5-1 2018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2018 WLIC 대회장



WLIC 한국 참가자들과 신기남 위원장



한국어 참가자 모임



글로리아 페레스 살레몬 IFLA 회장(중앙)과
신기남 위원장



신기남 위원장(중앙)과 로이다 가르시아 페보
미국도서관협회장



신기남 위원장(중앙)과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사서

2) 2019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2019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그리스 아테네 메가론 아테네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도서관, 변화를 위한 대화(Libraries : dialogue for change)’라는 주제로 전 세계 130개국 3,300명이 넘는 사서와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였다.

신 위원장은 8월 27일에 제럴드 레이트너(Gerald Leitner) IFLA 사무총장과 헬렌 맨디(Helen Mandi) 사무차장, 산제이 쿠마르 비하니(Sanjay Kumar Bihani) 아시아·오세아니아지부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한국(부산)의 2023년 세계도서관대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IFLA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는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과 부산시 교육협력과장 등이 동석하였다.

또한 신 위원장은 한일 도서관계 상호협력 논의를 위해 8월 28일에는 오다 미쓰히로(小田 光宏)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일본 도서관정보학회 회장)과의 면담에서 한일 도서관계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이 자리에는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과 오동근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이 동석하였다.

2019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IFLA 연차 총회, 분과 상임위원회, 200여개의 포스터 세션, 250개 이상의 공개 세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회기간 중 위원장의 주요 일정은 <표 3-5-2>와 같다.

표 3-5-2 2019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위원장 주요 일정

날 짜	일정	주요 내용
8월 24일(토)	한국어 참가자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9:00~20:00 / 컨퍼런스 룸 1 ✓ 참석 : 총 70여명(국립·공공·대학·전문도서관 등 도서관인) ✓ 주요내용 (축사)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조영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환영사) 글로리아 페레스 살메론 IFLA 회장 (주요 프로그램) 제51회 한국도서관상 대상 수상기관(수원선경도서관) 운영사례 발표, 2019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지 (부산) 소개 등
8월 25일(일)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0:30~12:00 / 람브라키스 홀 ✓ 참석 : 130개국 3,300여명(IFLA 관계자, 각국 협회원, 도서관인 등) ✓ 주요내용 · IFLA 신입회장 소개 및 기간 성과 보고 · 그리스 조직위원장 환영사, IFLA 회장 개회사, 기조연설 · 2020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아일랜드 더블린) 발표 · 그리스 전통공연 등

날 짜	일정	주요 내용
	전시회 개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6:00~18:00 / 메가론 전시장 ✓ 참석 : 137개국 3,500여명(IFLA 관계자, 각국 협회원, 도서관인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사, IT 업계, 각국도서관협회 등 100여개의 홍보부스 개막식 · 대회장 내 설치된 전시시설에 대한 설명 · 오케스트라 문화공연 등
8월 26일(월)	글로리아 페레스 살메론 IFLA 회장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9:30~11:30 / 람브라키스 홀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주제 관련 패널 등 대화 · IFLA의 글로벌 비전 주도 등 비전 공유
	포스터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4:00~15:00 / 메가론 Poster Area ✓ 주요내용 : Best IFLA Poster로 선정된 3개 나라(#37 리투아니아, # 5 말레이시아, # 102 스웨덴)의 포스터 내용 설명 (각국 도서관 약 100여개 팀(198개 포스터)이 참가하였으며 IFLA 전문위원회에서 배심원을 구성하여 선정)
8월 27일(화)	오픈액세스 관련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8:30~10:30 / 람브라키스 홀 ✓ 현황 공유 : 매년 학술지 가격 상승과 함께 오픈액세스 운동은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상업적 제한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 ✓ 이슈 논의 : 법적 및 윤리적 관점에서 오픈액세스 관련 논의 등
	아시아·오세아니아지부 회장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0:30~11:00 / 컨벤션 카페 ✓ 참석 : 총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위원장, 오동근 계명대 교수, 고정우 부산시 교육협력과장 등 · (국외) 산제이 쿠마르 비하니 오세아니아지부 회장, 인도 도서관협회장 ✓ 주요내용 : 2023년 WJIC 한국(부산) 유치 협조 및 지지 표명 등
	포스터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2:00~13:00 / 메가론 Poster Area ✓ 주요내용 : 상동
	IFLA 사무총장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4:00~15:00 / IFLA 사무실 ✓ 참석 : 총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위원장,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고정우 부산시 교육협력과장 등 · (국외) 제랄드 레이트너 IFLA 사무총장, 헬렌 맨디 IFLA 사무차장 ✓ 주요내용 : 2023년 WJIC 한국(부산) 유치 계획 설명 및 협조 요청
8월 28일(수)	크리스틴 맥켄지 IFLA 차기 회장 당선자 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9:30~11:30 / 뱅퀘팅 홀 ✓ 발표주제 : 함께 일합시다 ✓ 주요내용 : 도서관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 그것을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자 등 논의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2:30~14:00 / 컨벤션센터 인근 레스토랑 ✓ 참석 : 총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위원장,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 오동근 계명대 교수 등 · (국외) 오사 미쓰히로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일본도서관정보학회장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도서관계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현안 사항 공유 · 한일 양국 간의 지속적 상호협력 논의 등

날 짜	일정	주요 내용
	문화의 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9:00 ~ 23:00 / 그리스국립도서관 등 ✓ 참석 : 130개국 3,300여명(IFLA 관계자, 각국 협회원, 도서관인 등) ✓ 주요내용 : 그리스 전통 문화공연 등 상호 네트워크 교류의 장 ✓ 기타 :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Stavros Niarchos) 재단에서 전체 행사 후원
8월 29일(목)	폐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 16:00~17:30 / 람브라키스 홀 ✓ 참석 : 130개국 3,300여명(IFLA 관계자, 각국 협회원, 도서관인 등)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LA 글로리아 페레스 살메론 회장 이임사 · 신임 IFLA 크리스틴 매켄지 회장 취임사 · IFLA Award 발표 및 시상식(2019 세계도서관대회를 빛낸 참가자들) · 2021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네덜란드 노트레담) 발표 등
8월 30일(금)	도서관 방문 및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 : 그리스국립도서관 ✓ 개관연도 : 183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2월, 팔레론 만(Phaleron Bay) 델타(Delta) 스타브로스 니아르코스 재단 문화 센터(Stavros Niarchos Foundation Cultural Center)로 국립도서관 이전 개관 (센터 내 국립오페라, 공원 등이 함께 있어 다양한 문화 행사 등 운영) ✓ 소장자료 : 720,76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신문, 지도, 세계 각 나라의 언어로된 필사본을 비롯하여 1,400년 전 그리스어 성서 필사본, 채식 사본, 진귀한 초판본 등 소장 ✓ 이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간행물, 필사본, 컬렉션 열람 : 월요일~금요일(9:00~14:00) · 열람실 : 월요일~일요일(6:00~24:00)

그림 3-5-2 2019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2019 WLIC 대회장



WLIC 한국 참가자들과 신기남 위원장



제랄드 레이트너 IFLA 사무총장(왼쪽) 면담



산제이 쿠마르 비하니 IFLA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회장과 신기남 위원장



오사 미쓰히로 일본도서관협회 이사장(왼쪽) 면담



그리스 국립도서관 견학

제6절 국내 도서관 현장 소통 강화

신기남 위원장은 도서관 사서와 정책담당자, 도서관 관련 기관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도서관계 현안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도서관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지난 2년간 위원장의 국내 도서관현장 방문 등 대외활동 일정은 <표 3-6-1>과 같다.

표 3-6-1 위원장 국내 도서관현장 방문 등 대외활동 일정

연번	개최일	주요 내용
1	2018. 04. 30.	· 국회도서관 현장 방문
2	2018. 05. 24.	· 제16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 참석 및 축사
3	2018. 06. 28.	·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공동 학술세미나 참석 및 축사
4	2018. 07. 04.	·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33차 실무자 워크숍 참석 및 축사
5	2018. 09. 05.	· 평택시 도서관정책연구회 초청 강연회 특강
6	2018. 09. 06.	·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 사서사마당 초청 강연회 특강
7	2018. 09. 13.	·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공공정책정보과 초청 간담회
8	2018. 09. 19.	· 느티나무도서관 현장 방문
9	2018. 09. 28.	·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 전북도지사 간담회 참석
10	2018. 10. 19.	· 2018 경기 '다독다독축제' 초청 강연회 특강
11	2018. 10. 22.	· 당진시 지역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직원 특강
12	2018. 10. 24.	·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 축사 및 우수도서관 시상
13	2018. 10. 31.	· 김해시 위원장 초청강연 특강
14	2018. 11. 09.	· 성균관대학교 초청강연 특강
15	2018. 11. 14.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제11회 지능정보 사회와 학술정보 포럼' 특강
16	2018. 11. 15.	· 충남도서관 방문 및 '충남 도서관인의 날' 특강
17	2018. 11. 16.	· 문헌정보학 3개 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참석 및 축사
18	2018. 12. 07.	· 전자저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참석 및 축사
19	2018. 12. 11.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특강
20	2018. 12. 11.	·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 참석 및 인사말
21	2019. 01. 18.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제12차 정기총회 및 현안 세미나 참석 및 축사

연번	개최일	주요 내용
22	2019. 01. 28.	· '공공도서관 정책의 진단과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참석 및 축사
23	2019. 03. 21.	· 공공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및 공공도서관 협력 워크숍 참석 및 축사
24	2019. 03. 29.	· 바티칸도서관 국제협력국장 예방 및 면담
25	2019. 04. 03.	· 2019 부산지역대표도서관 세미나 참석 및 축사
26	2019. 04. 22.	· 광주 도서관정책 진단과 처방 토론회 참석 및 축사
27	2019. 04. 23.	· 2019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행사 참석 및 축사
28	2019. 06. 04.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관계자 면담
29	2019. 06. 10.	· 군산시립도서관 직원 특강
30	2019. 07. 11.	· 한국도서관협회장 이·취임식 참석 및 축사
31	2019. 07. 26.	·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관련 토론회 참석 및 축사
32	2019. 08. 13.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워크숍 참석 및 축사
33	2019. 10. 16.	·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축사 및 우수도서관 시상
34	2019. 11. 11.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초청 특강
35	2019. 12. 03.	· 한국점자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축사
36	2019. 12. 04.	· 강원도 도서관 직원 워크숍 초청 특강
37	2019. 12. 12.	·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출범식 참석 및 축사
38	2019. 12. 27.	· 대통령 자문기구 및 소속 위원장 등 청와대 만찬 참석
39	2020. 01. 10.	· 주한과테말라대사 접견 및 면담
40	2020. 01. 27.	· 지역대표도서관장 회의 참석 및 축사
41	2020. 02. 20.	·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 세미나
42	2020. 03. 18.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예방 및 면담

그림 3-6-1 위원장 국내 도서관현장 방문 등 대외활동



국회도서관 현장 방문 ('18.4.30)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컨퍼런스 ('18.5.24)



한국전문도서관협회의 공동 학술세미나 참석 및 축사 ('18.6.28)



삼대학교도서관협의회 워크숍 ('18.7.4)



평택시 도서관정책연구회 특강 ('18.9.5)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 특강 ('18.9.6.)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 초청 간담회 ('18.9.13.)



네티나무도서관 현장 방문 ('18.9.19.)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 전북도지사 간담회 ('18.9.28.)



2018 경기 '다독다독축제' 특강 ('18.10.19.)



당진시 도서관 직원 특강 ('18.10.22.)



제55회 전국도서관대회 축사 ('18.10.24.)



김해시 초청강연 ('18.10.31.)



성균관대학교 초청강연 ('18.11.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특강 ('18.11.14.)



'충남 도서관인의 날' 특강 ('18.11.15.)



문헌정보학 3개 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18.11.16.)



전자저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18.12.7.)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 ('18.12.11.)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특강 ('18.12.11.)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정기총회 ('19.1.18.)



공공도서관 정책 토론회 ('19.1.28.)



공공도서관협의회 협력 워크숍 ('19.3.21.)



바티칸도서관 루이지나 국제협력국장 예방 ('19.3.29.)



2019 부산지역대표도서관 세미나 ('19.4.3.)



광주 도서관정책 진단과 처방 토론회 ('19.4.22.)



2019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행사 ('19.4.23.)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관계자 면담 ('19.6.4.)



군산시립도서관 직원 특강 ('19.6.10.)



한국도서관협회장 이·취임식 축하 ('19.7.11.)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관련 토론회 ('19.7.26.)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워크숍 ('19.8.13.)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축하 ('19.10.16.)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도서관문화전시회 테이프커팅 ('19.10.16.)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초청 특강 ('19.11.11.)



한국점자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식 ('19.12.3.)



강원도 도서관 직원 워크숍 초청 특강 ('19.12.4.)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 출범식 ('19.12.12.)



지역대표도서관장 회의 ('20.1.27.)



국회도서관 개관 68주년 기념 세미나 ('20.2.20.)

4 장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제 1 절 추진배경

제 2 절 추진경과

제 3 절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제 4 절 위원회 정책방향(2020~2022)

04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제1절 추진배경

제6기 위원회는 2019년 10월말, 위원회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잔여임기 내 위원회가 해야 할 일과 세부일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제6기 초기에 제안한 '10대 과제 및 4대 긴급사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출범할 7기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또한 2년이라는 임기가 그리 긴 기간이 아니며, 위원회는 도서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므로 도서관계 현안을 기반으로 위원회에서 갖게 된 고민과 전임위원회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7기 위원회가 빠르게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표 4-1-1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0대 과제 및 4대 긴급사안'

□ [10대 과제]

- 실질적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강력한 집행 점검
- 도서관법 개정,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
- 도서관의 인적·물적 기반 확충
- 지역격차 해소
- 전문인력 배치기준 개선
- 사서 자격제도 개선
- 도서관 남북교류
- 국회와 도서관계의 소통
- 위원회 위상 강화

□ [4대 긴급사안]

-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의 위상 확립
- 사무공간 확보
- 사무기구 구성
- 위원회 지원 강화

제2절 추진경과

제6기 위원회 활동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제안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박영숙, 이종창, 이지연 위원을 주축으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였다. 특별전담반의 명칭은 “도서관 협치전략 연구모임”으로 하였다. 이 명칭에는 위원회가 도서관계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도서관계를 이끌기 위해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담겨져 있었다.

특별전담반은 2019년 11월부터 약 2개월 간 운영되었으며, 논의내용은 위원회의 주요 현안, 향후 추진과제 및 안건 발굴, 위원회의 외연확장 방안 등이었다. 아울러 특별전담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이 자료 조사 등을 지원하였다.

‘도서관 협치전략 연구모임’의 세부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다.

- '19. 10. 29. 특별전담반 운영결정
- '19. 11.~12. 도서관 협치 전략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 '19. 1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안)' 작성
- '19. 12. 18. 제5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모임 운영경과 및 과제(안)' 보고
- '20. 1.~2. 과제(안)에 대한 위촉직 위원 의견 수렴 및 보완
- '20. 3. 위원장 보고

표 4-1-2 특별전담반 구성 및 운영

- (명칭) 도서관 협치전략 연구모임
- (목적) 위원회 주요 현안, 향후 추진과제 및 안건 발굴, 위원회 외연확장 방안 모색 등
- (주요내용) △ 제3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 구체화·체계화를 통한 과제 선정
 △ 향후 위원회 차원의 사업계획(안) 제언
 △ 위원회 외연확대 및 기획·협력 기능 강화
- (참석자) 박영숙, 이종창, 이지연(이상 도정위원), 김태경(이상 사무국, 간사)
 사무국 직원: 업무분장에 따라 자료조사 등 지원
- (기간) 2019. 11~12 주 1회 정기모임 (총 8회)

* 도서관 협치전략 연구모임 구성 당시에는 제6기 위원회 활동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운영 중에는 도서관 정책 제안 논의로 집중되었다.

제3절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1. 추진개요

‘도서관 협치전략 연구모임’은 2개월간의 집중적인 논의 결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를 완성하였다. 동 자료의 내용은 제6기 위원회의 정책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제7기 위원회의 정책 의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 활동평가 및 제7기 정책 제안
- 도서관계 주요 현안과제 제시 및 대정부 도서관 정책 제안
- 도서관 현장 및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도서관 정책 의제 개발 및 공유 확산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힘 있는 추진 방안 제안
- 도서관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활성화 제안

2. 추진근거

위원회의 정책제안은 도서관법 제12조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핵심 정책과제를 근거로 하였다.

도서관법 제12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의 수립·심의·조정이라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위원회가 수립·심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위원회의 새로운 정책 의제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 관련법과 제도,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 해소,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등을 비롯하여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중 [핵심정책과제] 4-2. 도서관협력체계의 강화를 정책 제안의 또 하나의 축으로 하였다. 종합계획의 모든 정책과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계의 협력을 기반으로 도서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전체 도서관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견인하는데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의 결론에서였다.

표 4-1-3 정책제안의 근거 1- 도서관법 제12조

-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개정 2009. 3. 25.)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 4-1-4 정책제안의 근거 2-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전략방향 및 핵심·정책과제

- [전략방향]** 4. 미래를 여는 도서관혁신
[핵심정책과제] 4-2. 도서관협력체계의 강화
- 4-2-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 제고
 - [추진과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 미래를 위한 도서관 선언
 - 지역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 협력체계 강화
 - 4-2-2.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 [추진과제]**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을 연결하는 국가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대표도서관 중심 지역 내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 도서관계-출판계-독서계 협력 체계 구축
 -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방안 마련

3. 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제6기 위원회는 2019년 1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발표하였다.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하였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으로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이라는 도전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과 공명하고 전체 국정기조와 맞물리는 도서관 비전을 우리 사회 전체와 공유하고 그걸 담보할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제6기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는 이러한 정책 체계 구축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에서 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고민하고 도서관의 변화와 새로운 도서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는 전체 4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및 실행과제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도서관 발전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이 절실한 사회적 요구 · 참여와 거버넌스 국민주권시대, 도서관의 역할과 과제 · 변화가 필요한 도서관과 도서관정책
제2장 도서관 거버넌스 혁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정책 체계의 구축 · 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 영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3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략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 정립 · 도서관 정책 환경 구축 및 정책 개발
제4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실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실행 · 도서관 정책 홍보 사업 활성화 · 법적·제도적 추진과제 · 평화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도서관의 준비 ·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기반 혁신방안 모색 · 도서관 핵심 정책 이슈 제안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제안

제1장 도서관 발전 비전은 현실의 변화 속에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이러한 도서관의 변화를 통하여 도서관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 도서관 거버넌스 혁신과제에서는 도서관 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전 부처, 전 도서관, 유관기관 간의 도서관정책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 연결고리를 갖는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장 위원회 전략과제는 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한편, 도서관 정책 환경의 구축과 정책개발에 대한 위원회 역할을 제안하였다.

제4장 위원회 실행과제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적극적 실행, 도서관 정책 홍보 사업 활성화, 법적·제도적 추진과제, 평화통일시대를 맞이하는 도서관 준비,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기반 혁신방안 모색, 도서관 핵심정책 이슈 제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제안 등으로, 도서관 거버넌스 혁신을 통하여 위원회가 실제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제6기 위원회가 7기 위원회에 제안하는 사항이며, 6기 위촉직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내용이다. 다만 본 보고서에 담긴 “위원회의 전략 및 실행과제”는 요약본으로 전체내용은 별도로 제7기 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4절 위원회 정책방향(2020~2022)

제4절에서는 제7기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제3절 '위원회의 전략 및 실행과제' 중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6기 위원회는 도서관을 '시민이 탄생하는 제3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서관의 가치 공유 및 확산', '평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도서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 정립'이라는 3대 과제를 제안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4-1-6>과 같다.

표 4-1-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책방향(2020~2022)

구분	주요 내용
과제1 새로운 도서관의 가치 공유 및 확산	<p>추진배경</p> <p>참여와 거버넌스의 국민주권시대에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제고</p>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찰하고 모색하는 공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하는 사회, 함께 길을 찾는 도서관의 역할 인식 제고 · 서비스의 제공에서 역동적인 커뮤니티 활동과 교류를 촉진하는 매개체 · 선택과 집중을 위한 도서관 업무구조 개편, 조직문화의 과감한 혁신 ◆ 활동과 관계망의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숨죽인 공부방에서 삶을 북돋우는 도서관 공간의 혁신 · 경계를 넘어 도서관문화의 사회적 접점과 협력망 확대 · 경험을 문화로 만들어갈 제도, 정책, 자원 마련 ◆ 시민의 힘이 생산되는 발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역할 제시 등 국가차원의 '미래도서관 비전 선언' · 정부와 사회 각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과 협치 전략 수립 · 도서관이 포용·개방·혁신을 담아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실행 체계 마련
과제2 평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도서관	<p>추진배경</p> <p>도서관을 매개로 국가차원의 평화·공존 정책 의제화</p>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 공존 시대의 도서관 역할 규명 및 정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연구 ·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 정보문화 교류의 가치 연구 · 평화 공존 관련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 운영 ◆ 실질적 남북 도서관 교류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정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의제 발굴 · 남북 도서관 교류 및 협력 방안 모색(개성공단에 가칭 '평화도서관' 건립 등) · '도서관, 통일공감주간' 신설 운영: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과 병행

구분	주요 내용
과제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 정립	❖ 통일 이후 도서관 정체성 확립 · 통일 독일의 도서관분야 통합 사례 연구 · 통일 이후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도서관 통합 방안 연구 · 통일 시대 대국민 소통·화합을 위한 가칭 ‘평화도서관 열차’ 운영
	추진배경 정책과제 추진의 연속성 및 실행의 지속성을 고려한 위원회 운영 주요내용 ❖ 법·제도적 지위 확립 · 정책 의제별 위원 선임 및 전문위원회 운영 · 범정부 차원의 물색위원회(Search Committee) 구성·운영 근거 마련 ·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권 신설 ❖ 운영 체제 확립 · 대통령 위원회 및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등 협력 체계 구축 · 심의안건에 대한 국장급 실무조정회의 운영(도서관법 시행규칙 제7조) · 사무국(위원회)과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문체부)의 기능 및 직무 확대 · 별도조직인 위원회 사무국의 정식 직제화 ❖ 위원장 상근제 도입 ·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위원장 활동범위 확대 · 도서관 정책 의제 확대를 위한 위원장 활동 보장 · 차기 민간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장 임기(대통령 위촉일자) 조정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처를 넘는 폭넓은 의견 수렴 뿐 아니라 7기 위원회의 공동연구와 토론, 워크숍 등을 통하여 위원들 간의 공론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과제에 따라서는 미래 도서관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과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7기 위원회의 대정부 도서관 정책 제안에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제4장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비전인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의 견인을 위한 제7기 위원회의 노력과 결실을 기대한다.

1. 제6기 위촉위원 명단

성 명	주요 경력	성 명	주요 경력
 위원장 신기남	·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 (전)제15·16·17·19대 국회의원	 고영만 (소위원장)	·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성균관대 문과대학 학장
 김상현 (소위원장)	· 네이버 경영 고문 · (전)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수연 (소위원장)	·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 · (전)KBS·동아일보 기자
 박영숙	·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관장	 박완순	· 박완순 인성교육개발원 이사장 · (전)호서대 초빙교수
 박재섭	· 인제대 한국학부 교수 · (전)국제도서관협회원맹 분과위원	 서혜란* (소위원장) (19.9.5. 해촉)	·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 (전)신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우찬제	·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전)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	 이상복 (소위원장)	· 대전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전)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수상	·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전)한국도서관·정보학회 회장	 이순녀	· 서울신문 논설위원 · (전)서울신문 문화부장
 이정미	· 인덕대 도시환경디자인과 교수 · (전)한국색채학회 이사	 이종창	·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 (전)과주 가람도서관장
 이지선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법령해석심의회 위원	 이지연	·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전)한국정보관리학회 회장
 이현주	· 대전대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 (전)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정윤희	· 출판저널 대표 ·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한혜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 (전)KERIS 학술정보부장		

* 서혜란 위원의 경우, 정부인사발령(국립중앙도서관 임명)으로 2019년 9월 5일자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였음

2. 위원회 활동 언론보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 신기남 신임 위원장 "도서관계 숙원 사업 모두 매듭 짓겠다"

[2018. 4. 9. 뉴스핌=이현경 기자]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각오를 밝혔다.

제 6 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 월 9 일 출범했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등 11 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위원 19 명 등 총 30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 년이다.

신기남 신임 위원장은 "도서관문화 발전으로 문화선진국을 구현해야 하며,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중심체로서 도서관을 육성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발표하는 제 3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획기적인 내용으로 수립해 힘차게 추진하고, 오래 지체되었던 도서관계의 숙원 사업들을 모두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임기 2 년)에 신기남 변호사를 위촉했다. 신기남(65) 신임 위원장은 전북 남원 출신이며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 년부터 2005 년까지 한국도서관협회장을 역임했고, 2006 년 열린 서울세계도서관대회(IFLA)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에는 신기남 변호사를 비롯해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상현 네이버(주) 경영 고문, 김수연 (사)작은도서관만드는 사람들 대표, 박영숙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장, 박완순 박완순 인성교육개발원 이사장, 박재섭 인제대학교 인문문화융합학부 교수, 서혜란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우찬제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수상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순녀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정미 인덕대 도시환경디자인과 교수, 이종창 파주 가람도서관장,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이지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현주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 정윤희 출판저널 대표,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이 함께한다.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도서관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앞으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문재인정부, 도서관위원회 위상 복원해야"

2019년 종합계획 발표, 시급한 임무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역할 증대 전망

[2018. 4. 30. 내일신문=대담 남봉우 정치편집위원·정리 송현경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은 도서관계의 리즈시절이었습니다. 도서관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도서관계 인사들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노 전 대통령에게 도서관계의 현실과 대통령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따랐습니다. 도서관위원회가 설치돼 막 활동을 시작했을 때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법정기구인 사무기구 설치는 무산되고,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도 끊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위축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사무실 하나가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일을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인 도서관위원회를 승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법무법인 한서 남부사무소에서 만난 신기남 제6기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일성이다. 전직 의원이자 변호사인 그는 이달 도서관위원장에 위촉된 이후 '대통령 소속 도서관위원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라는 건의서를 직접 작성해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해 도서관계의 현실을 알렸다. 내일신문은 신 위원장을 만나 건의서 내용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이 나아가갈 방향, '책 읽는 사회'를 만드는 방안 등에 대해 들었다.

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직할 기구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종류의 도서관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 심의, 조정하기 위해 2007년 발족됐다.

■ 도서관문화는 진보·보수 등 정권의 이념과 상관없이 없을 것 같은데.

참여정부 시절에 도서관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이명박정부는 이를 없애려고 했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최소화하는 위축정책을 계속했다.

도서관은 문화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다. 어느 나라에서도 도서관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경제'가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다 없애라고 했다. 도서관위원회도 대상이었다. 그때 도서관계, 국회 등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도서관위원회를 존속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간 대가를 치러야 했다.

■ 관련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들었다.

11년 전 도서관위원회가 발족할 때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온 비서관들이 참석한 대규모 보고회를 가졌다. 문화 분야에서 이렇게 보고회를 한 게 처음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셈이다. 그 보고회 자리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계셨다.

내가 임명된 것은, 원래 다른 사람이 후보로 올라갔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내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도서관계 인사들을 만나서 상의하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두 이 일을 맡아달라고 권유했다. 침체한 도서관위원회를 크게 한 번 바꿔보라는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락했다.

건의서는 도서관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탄압을 받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도서관계와 도서관위원회가 처한 현실을 말한 것으로 보면 된다. 법에 보장돼 있는 사무기구도 구성되지 않고 사무실조차 없어진 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챙겨 달라는 내용이다. 극도로 약화된 위상을 복원해 달라는 취지다.

그 건의서를 각계에도 보냈는데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청와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 2019년에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올해 안에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끔 하는 일이 제6기 위원회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임무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데 내년부터 3차계획이 시행된다. 도서관 분야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해당한다.

도서관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사서 확충, 공공도서관 증설 등 지속적 과제는 물론 도서관법 개정,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 지역 격차 해소와 같은 시급한 현안을 포함시키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제시, 도서관 남북교류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점차 황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목되는 대학도서관을 살리는 획기적인 정책도 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매번 되풀이 되는 추상적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

■ 공공도서관 관련 현안이 많은데.

도서관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들이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돼야 한다. 2017년 기준 1042개가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긴 한데 실제 운영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정규직 사서는 법정 총원기준의 20%에 불과하다. 사서 없는 도서관은 선생님 없는 학교와 유사하다. 예산, 전문인력 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건물만 짓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력 확충과 운영비 증액이 관건이다.

작년 문체부가 공개한 사서배치 기준 개선안 관련 논란이 일었는데 현장과 소통부족이 원인이라고 본다. 위원회도 관련 TF를 꾸려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공공도서관 발전 정책 전반에 관해 공공도서관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소통에 나서겠다.

올바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각계각층의 도서관인들을 만나 여론을 수렴할 것이고,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 책임자들과도 긴밀히 접촉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겠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각종 정보통신 기술과 신기술이 융합해 사회에 혁신적 변화가 온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한층 고도화된 지식정보 사회가 온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식정보 사회의 핵심기구인 도서관의 역할은 축소는커녕 대폭 증대될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공공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핵심적 문화공간이자 학습공간이 될 것이다. 개입화 시대에 도서관은 학교 이상의 지식정보 공급처가 될 것이다. 도서관의 설비, 운영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 사서의 역할도 도서관의 역할과 비례해 증대되고 더욱 고도화된 전문직종으로 진화할 것이라 본다.

■ '책 읽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이 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시민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각 도서관은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사서들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협업,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최고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도서관을 넣어야 한다.

제대로 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여유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정책이 따라야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다.

“도서관 발전위해 앞장서 욕 먹겠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신기남 위원장 인터뷰

Ⅰ “책 읽고, 도서관 찾는 대통령 둔 국민은 행복”

[2018. 6. 8. 문학뉴스=이성봉 기자]

“전국 2만2천 개 도서관은 대한민국의 혈관ियो, 이곳에서 일하는 12만 명의 근무자와 52만 명의 봉사자는 혈액이다. 한 나라가 문화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피가 맑고 핏줄이 건강해야 한다. 맑은 피가 튼튼한 혈관을 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필요하다면 굶은 일에도 총대를 메고, 욕도 먹겠다.”

도서관 관련 정부정책의 수립, 심의, 조정을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신기남 위원장(사진, 왼쪽)은 7일 <문학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위원회가 정말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움직여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4월 9일 2년 임기로 출범한 제6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는 위촉직으로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9명이 들어와 있고, 국무위원 1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위원회의 격만 놓고 보자면, 다른 어떤 기구보다도 높은 셈이다. 이 기구를 이끌고 있는 이가 바로 신 위원장이다.

‘신기남’이라는 이름은 많은 이들의 뇌리에 ‘정치인’으로 각인돼 있다. 4 선(제 15, 16, 17, 19 대) 의원 출신에 집권당의 의장까지 역임한 경력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도서관 맨’이기도 하다. 경기도 시절 문학청년으로 문예반에 몸을 담았던 때부터 ‘도서관발전재단 이사장’,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직책을 맡았던 의원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는 늘 도서관과 인연을 맺어왔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은 도서관과 관련된 그의 이력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를 만나 삶과 문학, 도서관에 관해 들어보았다.

■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신 지 제법 된 터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보니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은 지 꽤 된 것 같다. <문학뉴스>와 만났으니, 문학 얘기부터 해야겠다. 예전부터 먹고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글을 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생각을 구체화해 2년 전부터 소설을 썼다. 작품을 구상한 지는 제법 오래됐다. 자료수집을 거쳐 1년에 한 편씩, 두 편을 완성했다. 조만간 독자들의 평가를 받아볼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변호사 일을 시작했지만 직접 변론에 나서 후배들과 재판정에서 부딪히는 일은 썩 달가운 일이 아닌지라 적극적이지 않았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일이 아니었다면 전업 작가로 글만 쓰면서 조용히 살았을 것이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은 높지만, 사실상 봉사하는 자리라고 들었다. 어떤 경위로 제안을 받았는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다. 참 힘든 과정을 거쳤다. 사상 처음으로 도서관 정책을 이해하는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계시던 분이 현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미려한 제게 무거운 짐을 맡겼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도서관 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게 되었다. 속으로 이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도서관정책위원회는 사실상 명맥만 유지한 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당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위원회가 정권 교체 이후 인수위에서 7개월 만에 폐지될 지경까지 갔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위원회가 온갖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인적 조직이나 위원회 구성, 운영비 지원, 정책 분야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속에 지난 10년 동안 위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명맥만 이어 왔다.”

■ 신 위원장께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맡은 뒤로 기대가 많이 쏠리고 있다는 느낌인데.

“그간 위원회는 살아 있지만 죽은 거나 같은 ‘생불여사(生不如死)’ 같은 상태였다. 대통령님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이것 좀 살려내라’는 뜻을 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운명이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다시 살려 놓아라’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다. 힘들 것은 각오했다. 고민하다 결국 4 일 만에 수락했다. 인간적으로 대통령님의 명령에 반발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도 했다. 단지 조건으로 대통령님께 현안을 설명할 시간을 30 분만 달라고 요청했다. 올 4 월과 5 월은 민족사에 기록될 정도로 심각한 현안이 오가는 역사적인 날들의 연속이었다. 남북 회담과 판문점 선언, 북미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우리 정치사에 중대한 고비가 계속됐다. 이후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앞으로의 과제와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찾아뵈려고 한다.

■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처음 떠올린 생각은 무엇이었다.

“책 읽는 대통령이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행복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국회에 있을 당시 국회 도서관 포럼의 간사로 있던 도종환 의원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있다는 것도 든든하게 생각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기획단을 통해 많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새로운 출발에 힘을 실어 주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도서관 정책이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상 회복과 적폐청산을 위한 방안은.

“위원장이 되자마자 건의문을 작성해서 각계와 거의 모든 도서관 관계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우리 위원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건의문이었다. 위원회가 처한 위기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떨치고 일어나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시급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열렬한 호응이 답지했다. 격려의 뜻과 의견도 많이 보내 주셨다. 한결같이 큰 기대를 거는 것 같았다. 여러분의 반응에 용기가 솟기도 하지만 한편 걱정도 되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돌아올 실망의 질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제 6 기 위원회 앞에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인 종합계획과 실행 계획의 수립과 강력한 집행, 도서관법 개정,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 도서관의 인적 및 물적 기반 확충, 지역격차 해소, 전문 인력 배치기준 개선, 사서 자격제도 개선, 도서관 남북교류, 국회와 도서관계의 소통, 도서관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다.

■ 듣고 보니 과연 엄청난 과제가 쌓여 있는 것 같다.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다. 일부는 역대 위원회가 과제로 설정하고 노력

해 온 내용이었지만 추상적인 계획만 세우고 미사여구만 늘어놓아 실제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1차, 2차 종합계획을 결산하건대, 추상적인 문구로 채운 말의 잔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도서관의 확충 등을 실적으로 자화자찬했고, 실질적 발전은 미흡했다. 운영을 위해 당장 긴급한 사안으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위상 확립, 위원회 사무 공간 복원, 위원회 사무기구 구성, 위원회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 이런 난제들을 앞에 두고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는지.

“위원회가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움직여 보겠다. 도서관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제3차 계획(2019-2023)은 당장 발등의 불이다.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 위원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과제이고, 사실 대통령 위원회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 위원회는 범정부 조직으로 11명의 장관들이 참여한 조직이나 역대정부에서는 한번도 제대로 모인 일이 없었다. 장관들만이 아니라 실무자들조차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랄 지경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란 명칭과 법적 기구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 위원회가 맡고 있는 실무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인지.

“내 생각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시해줘 고마운 마음이다. 전국 각처에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2만2천 개의 도서관은 대한민국의 혈관이다. 9만 명의 사서, 3만 명의 근무자, 52만 명의 봉사자는 이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다. 이 혈관이 건강할 때 대한민국은 문화선진국이 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겠다.

정부 측의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도 그동안 위원회를 지키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은 역대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한다. 그 당시 한 덩어리가 되어 위원회의 출범에 앞장섰고 또 폐지 반대 투쟁에도 나섰던 제가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어 만감이 교차한다.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위원회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왔다. 두 차례에 걸쳐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을 맡았고, 2006년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 시대가 맡긴 임무를 완수하겠다.

■ 출판사는 질 좋은 양서가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구입비 증액이 절실한 과제이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참 큰 걱정이다.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는 위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와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활동을 펼 계획이다. 새로 위촉된 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따고, 정책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 선봉에 나서 총대 매고 욕을 먹는 게 내 역할이다. 나는 2년 후면 이 자리에 없을 거다. 단, 그동안 철저하게 욕을 먹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겠다. 좋은 책이 나쁜 책에 의해 밀려나고, 예산이 없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도서관이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다.

■ 독서 애호가로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과 앞으로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면.

너무 많아 제대로 거론하기 쉽지 않지만 그동안 30~40번 읽은 책이 있다. 바로 헤르만 헤세(1877~1962)의 <신타르타(1922)>이다. 학생 때부터 정치가와 변호사 시절, 그리고 요즈음에도 계속 읽어왔지만 매번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헤세가 인도로 가서 불교에 관해 심취했다고 하나 것처럼 심오한 생각을 어떻게 소설로 남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 학생 때 문청이었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문학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는지.

“경고 재학 시절부터 문학에 뜻을 두고 있어서 당시 문예반 반장을 맡았다. 내가 3학년 때 2년 후배인 서울대 이인성 교수가 문예반으로 들어와 1학년 때 교내 화동문학상을 타기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교수의 글은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 늘 글을 쓰겠다는 생각은 품어왔다. 대학 시절 작품을 써서 서울대에서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누님(신선희 전 국립극장장)의 영향으로 일찍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누구보다 공연장에 많이 다녔다. 비록 늦게 글쓰기에 들었지만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앞으로 글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명도 ‘신영’으로 마련해 두었다.

신 위원장은 이날 도서관 정책에 대한 관점이나 공공도서관의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쾌하게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한편 오는 11일 오후 2시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도서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기남위원장 초청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아크로폴리스 같은 지역문화 중심 돼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 취임 100일 넘긴 신기남 위원장

[2018. 7. 26. 서울신문=이순녀 논설위원]

전국에는 공공도서관 1010 개를 비롯해 총 2만 2000 여개의 도서관이 있다. 초중고 학교 도서관이 1만 2000 여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작은 도서관이 5900 여개로 두 번째로 많다.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장애인도서관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도서관은 물론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까지 다양하다. 이 모든 형태의 도서관을 아우르는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기구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다. 2007년 6월 발족해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2년 임기의 위원회 조직도 6기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 9일

출범한 6기 위원회의 수장은 뜻밖에도 신기남(66) 전 국회의원이다. 1기 위원장인 한상완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이전 위원장들은 모두 문헌정보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한 학자였다. 신 위원장은 4선 경력의 중진 정치인으로 대중에 각인돼 있지만, 알고 보면 도서관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006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주최 세계도서관대회 조직 위원장을 지냈고, 이를 계기로 위원회 창설을 주도했다. 한국도서관협회장도 두 차례나 역임했다. 취임 100 일을 넘긴 신 위원장을 지난 18일 만나 6기 위원회의 현안과 포부를 물었다.

■ 위원장 자리를 제안받고 고심했다는데.

만감이 교차했다. 노무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위원회 중에 경제 빼고는 다 없애라는 지시 때문에 폐지 위기에 몰렸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총리 소속으로 위상 축소가 추진되는 등 굴곡을 겪었다. 도서관계가 합심해 존속은 시켰지만 활동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유명무실해진 위원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컸다. 하지만 결자해지라고 하지 않나. 위원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니 위원회를 살리는 일도 결국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

■ 지난 3개월 가장 역점을 둔 일은 무엇인가.

10년간 위원회가 상당히 위축됐다. 위상도 저하됐고 체제도 허물어졌다. 위원회 내에 법적 기구로 두기로 한 사무기구는 고사하고 위원들이 회의할 사무실조차 없다. 우선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데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 쉽진 않다. 일단 리모델링 중인 국립중앙도서관에 공간을 확보해서 사무실 문제는 다행히 해결됐다. 도서관 발전 장기계획 수립 등 위원회가 할 일이 많은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해 왔다. 도서관계 현장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애쓰고 있다.

■ 도서관의 중요성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굳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까지 둘 필요가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은 핵심적인 사회 인프라다. 우리는 경제 수준에 비해 도서관 체제가 미흡하고,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서관 정책은 문화부가 주무 부처이긴 하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행안부, 대학도서관은 교육부, 병영도서관은 국방부가 담당한다.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보니 미국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세계도서관대회가 끝난 뒤 청와대에 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됐고, 그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대통령 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겨우 명맥만 유지한 상태로 10년 세월을 보냈으니 안타깝다.

■ 위원회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도서관 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점검하는 일이 가장 큰 임무다. 도서관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시행될 3차 계획(2019~2023)이 당장 발등의 불이다. 1차, 2차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기엔 미흡했고 실제로도 큰 구실을 못했다. 3차 계획은 우리 도서관계 전반의 현안을 두루 살펴서 미래지향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도 새로 꾸렸다. 도서관의 인적·물적 기반 확충과 지역 격차 해소, 전문인력 배치 기준 등 과제가 쌓여 있다.

■ 6기 위원회에는 이전에 없던 '4차 산업혁명' 소위원회와 '남북교류' 소위원회가 신설됐다.

새로운 시대 조류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도서관 정책을 연구할 시점이라고 생각했다. 한층 고도화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맞춰 도서관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도 한 차원 높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책을 읽는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같은 지역 문화의 중심체가 돼야 한다.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도서관의 위치, 건축양식, 부대 시설 같은 하드웨어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다. 남북 교류도 시대적 과제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진 문화예술 교류 추세에 발맞춰 도서관 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남북 도서관 교류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 있다.

세계도서관대회를 앞두고 2005년 방북해 북한 도서관 관계자들과 만난 적이 있다.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최희정 인민대학습당 총장 등을 면담하고 서울대회에 참가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동도서관 지원, 남북 도서관 고전적(古典籍) 조사 등 8 가지 교류 사업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대회 직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때 추진했던 교류 사업을 다시 해 보려고 한다. 우선 다음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대회에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해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오는 10 월 강원 정선에서 개최되는 전국도서관대회에 북한 대표를 초청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두 대회를 계기로 교류 사업의 물꼬를 틀 생각이다.

■ **대학들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대학도서관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초·중·고 학교도서관도 전담 사서가 없는 곳이 태반이다.**

대학도서관과 초·중·고 학교도서관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그동안 위원회가 신경을 못 썼다. 도서관은 대학의 상징이자 경쟁력이다. 재정이 어렵다고 자료 구입비 줄이고 사서 인력 줄이는 게 말이 되나. 대학평가에 도서관 항목을 넣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총장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래도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나서겠다.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경우 전문 사서 배치 비율이 10%에 불과하다. 임시계약직 사서를 합해도 30%대다. 책 읽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릴 때부터 전문가에게서 올바른 독서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 교육 예산을 늘려 내실 있는 독서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도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2018 최우수 도서관'으로 서울 광진정보도서관·대구 월배초등학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8년 우수 도서관 48곳 선정·시상”
[2018. 10. 23. 미래한국=강해연 기자]

올해 최우수 도서관으로 서울 광진정보도서관과 대구 월배초등학교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 이하 위원회)는 2018년 우수 도서관 48 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10월 24일(수) 오후 4시, 강원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리는 '제 55 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공공·학교·병영·교도소·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

가'를 실시해 우수 도서관을 선정해왔다.

올해는 2,399 개관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5 개 관중, 5 개 영역별 90 개 평가지표를 적용해 1 차 정량평가, 2 차 정성평가, 3 차 현장실사, 4 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도서관을 선정했다. 포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 2 개, 국무총리 표창 7 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3 개, 문체부 장관 표창 33 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특별상 3 개 등이며, 총 48 개관에 5,550 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서울 광진정보도서관과 대구 월배초등학교가 받는다.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광진정보도서관은 사서가 중심이 되는 독서동아리 양성, 인문학강좌 확대 운영 등으로 이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해 3 차원 프린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작 공간(메이커 스페이스)을 운영하고, 지역 공공서비스 활동 공동체(커뮤니티)를 구축해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했다.

학교도서관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은 대구 월배초등학교는 독서활동 선순환을 위한 독서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관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활동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도서관과 독서활동으로 행복 교육공동체 실현에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기관으로는 공공도서관 부문의 경남 창원도서관과 경기 부천시립원미도서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김포시 통진도서관 등 4 개관, 학교도서관 부문의 대구 성동초등학교, 경기 의왕부곡중학교 등 2 개관, 병영도서관 부문의 해군 전투병과학교도서관이 선정됐다.

우수 도서관은 전국 도서관인 3,500 여 명이 모이는 '전국도서관대회'에서의 시상상을 통해 우수성을 알리고, 우수 도서관 인증 현판을 부착할 수 있는 특전을 받는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 도서관을 선정·시상하고, 혁신과 융합의 시대에 도서관이 새 길을 열어가는 데 디딤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실 문 열다

[2018. 10. 24. 내일신문=송현경 기자]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장(왼쪽), 박주환 국립중앙도서관장,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김성동 작가, 한상완 전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는 23일 국립중앙도서관 7층에 위치한 도서관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육성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 김수현 청와대비서실 사회수석, 남요원 문화비서관, 허용범 국회도서관 관장, 박주환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한상완 전 도서관위원회 위원장, 남태우 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김성동 작가, 도서관위원회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계는 어느 하나의 부처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도서관이 더욱 높은 차원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침체됐던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마련에 이어 법정기구인 사무기구를 구성하는 대통령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고 정책 활동을 위한 예산도 수립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도서관 정책과 기술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마주해 정부는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도서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최고 정책기구로서 도서관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도서관은 국민들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지식 인프라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도서관 생활기반시설(SOC) 확충 사업을 통해 국민의 문화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서관위원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위, 사무기구 설치 확정 "도서관법 규정대로 대통령령 근거 설치돼야"

[2018. 10. 31. 내일신문=송현경·김신일 기자]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가 설치된다. 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에 도서관법에 2009년 규정됐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도서관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30일 “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면서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사무기구의 인력 규모는 1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서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도서관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근거해 발족됐다. 도서관법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위원회는 지난 2007년 발족했으며 지난 4월에는 신기남 위원장을 주축으로 19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 제6기 도서관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외 부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의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된다.

도서관법 제12조에는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도서관위원회는 지금까지 사무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체부의 도서관과에 해당하는 도서관정책기획단이 사무기구 역할을 겸해 왔다. 이에 따라 도서관위원회가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등 도서관법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기엔 제약이 있었다. 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 설치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도서관위원회의 활동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평이다.

다만 행안부는 사무기구를 도서관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행안부가 관리하는 파견조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0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에 따르면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령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을 하는 만큼 행정 위원회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자문위원회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특별법인 도서관법이 일반법인 행정기관위원회법에 우선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도서관에 관한 최고정책을 수립·심의·조정하는 행정위원회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도서관법에 규정된대로 대통령령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해야만 사무기구가 지속 가능성 있는 기구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파견하는 내부조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소속 기관인 도서관위원회의 위상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면서 “11년간 방치해 온 위법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도밖에 안되는 만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가 없었던 것은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이 관련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나 해당 조직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무기구를 두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되 자문위원 만큼 규정에 따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도서관, 닫힌 공간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확 바뀐다 신기남 "각 부처·지방정부 독려해 정책 실천할 것" | 2023년까지 1468개관 목표...공공도서관 확충

[2019. 1. 23. 뉴스1=여태경 기자]



도서관이 책 읽고 공부만 하던 폐쇄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과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공간으로 새로 태어난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신기남 위원장은 “2007년 위원회가 발족된 뒤 10년 동안 위축돼 있었다”면서 “작년 4월 취임했는데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담당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도서관이 공동체 소통의 장으로서 개인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을 전략방향으로 삼고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문·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과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을 늘리고 도서관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도서관 이용자별 생애주기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이용자에 대한 연구와 수요조사에 기반해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 맞춤형 추천(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지역 주민의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를 보급하고 도서관과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실 우려가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자료를 보존해 미래세대에 전해주기 위한 전산화(아카이브)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복지를 실현하고 도서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간 개방 방안도 마련했다.

군인·환자·수용자·장애인 등 특수 환경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관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카페 등 개방 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진, 한파 등 각종 재난시 도서관이 안전한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융합 프로그램(영유아·어린이·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청년, 중장년) 등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인력 충원 및 사서 재교육을 진행하고 범부처 차원의 도서관 정책기구로서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역할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 대표도서관을 연결하는 국가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 방안 마련, 국제교류 강화 등을 통해 국내외 도서관 협력체제도 강화한다.

또 2023 년까지 1468 개관을 목표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이용자 맞춤형 장서도 국민 1 인당 2.5 권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7 년 공공도서관은 1042 개관으로 장서수는 2.03 권이다.

신 위원장은 “정책은 세우는 것보다 시행과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를 독려, 협력해 정책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도서관을 공동체 교류 공간으로...맞춤형 정보·체험 프로 확대

[2019. 1. 23. SBS 뉴스]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취업과 육아, 의료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교류와 체험의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도 마련됩니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3 일) 이 같은 내용의 '제 3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7 년 말 현재 1,042 개인 공공도서관 수를 2023 년까지 1,468 개로 늘리고, 작은도서관 수도 현재 6,058 개에서 6820 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국민 1 인당 장서 수도 2.03 권에서 2.5 권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을 미래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인문과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합니다. 또 노약자와 군인, 장애인 등 도서관 활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용자 별 생애주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맞춤형 추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고령화, 국제화, 정보기술 발전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불평등 지수 측정 도구를 개발해 활용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매체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식공간, 카페 등 개방 공간을 늘리고, 지진·한파 등 각종 재난 시 안전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서관, 정보 불평등 해소 앞장... 문화공동체 중심 만들 것”

[2019. 3. 12. 세계일보=정승욱 선임기자]



“인간 정신 활동의 중심 매개체로서 도서관의 역할은 진화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도서관은 책을 보고 빌리는 장소라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앞으로는 문화공동체 중심으로 그 역할을 확충해야 합니다. 가족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탄생의 주역으로,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신기남 전 의원(4선). 이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작가로서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도서관 전도사’로 변신해 다른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 그의 현재 직함은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회는 12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을 몇 개월 앞두고 만들어졌다. 밭보인 나머지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가까스로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위원회다.

신 위원장을 12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만감이 교차한 듯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 신 위원장은 애초 자신이 이 위원회를 만들었으나 빛을 보지 못했다면서 우여곡절의 과정을 털어놓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도서관정책의 중요성을 건의했다. 책을 읽는 국민에게 미래가 있다. 도서관을 대폭 만들어야 한다고... 독서광이었던 대통령도 당연히 공감했다.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정부가 움직인다고 설득했다. 이어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 시절 도서관법을 개정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 7개월 만에 정권이 넘어갔다. 이명박 인수위원회에서 폐지할 것이란 소식이 들렸다. 이유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사무실은 폐쇄되고 예산 한 푼 배정받지 못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아 이름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범부처 차원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임에도 그간 대통령 참석 보고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허약한 도서관정책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이런 곡절이 있었다는 것.

신 위원장에게 들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장서 현황은 열악했다. “2017년 한 해 1042개 공공도서관에서 새로 들어온 장서는 774만여권이다. 한 도서관당 대략 7000권 수준이다. 국내 출간 책은 대략 연 8만종인데,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신간은 수천 종에 불과하다. 신간이 부족하면 도서관 이용자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용자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는 특히 사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서관 서비스 질은 사서에 있는데도 우리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 사서의 경우 1명 또는 아예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자의 요청이나 기호에 맞춰 책을 소개하거나 골라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사서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 사서의 육성이 시급하다.”

사실 공공도서관의 사서 인력은 열악하다. 공공도서관의 사서 충원 비율은 법정 기준의 18.2%에 그친다. 그들의 68%가 비정규직이다. 대학도서관 직원 수도 줄었다. 초중고 학교도서관 사서 교사 수는 평균 0.1명도 안 된다.

신 위원장은 작년에야 위원장직을 다시 맡았다면서,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사무국이 출범 예정이니 이제야 시작하는 기분이다. 12년 전에 계획했던 사람과 책이 중심이 된 도서관을 다시 실행하려 한다.”

신 위원장은 올해부터 도서관 확충을 서두를 계획이다. “공공도서관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현재 1042개에서 1468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의 국민 1인당 장서 수도 2.1권 수준에서 2.5권으로 늘릴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년간 야심찬 도서관 중흥 계획을 새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아시다시피 미래는 훨씬 속도감 있게 문물이 변화할 것이다. 콘텐츠가 발달한 나라를 가보면 지역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공공도서관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정보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의 경우 정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이를테면 개개인에게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도서관이 설치되고 있었다. 아주 볼 만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도서관을 설치하는 우리와는 달랐다. 선진국에선 기부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서유럽의 경우 도서관의 40% 정도가 기부에 의해 운영되며 그 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 일부 지자체장은 도서관 유치에 아주 적극적이다. 도서관이 들어서는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고 지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유치원이나 초등생을 둔 엄마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을 계획 중이다.

“학령기에 도달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교과 수업에 참조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융합 프로그램도 있다. 영유아나 어린이, 여성이 함께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그는 아울러 “도서관의 경우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접근성이 절실하다. 도서관이 서 있는 장소는 자주 찾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들르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도서관 혁신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역할이 앞으로 막중할 것이다. 현재 전국 도서관의 70%가 지자체 소속이고, 나머지 30%는 교육청 소속이다. 도서관 정책에 관한 한 시도 지사는 물론 지자체장들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 강제력은 없지만, 거의 매일 시도지사들과 교육감을 만나 설득할 것이다.”

신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백년대계인 도서관정책이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완전한 국가 기관 체제를 갖춰 예산을 제대로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언론을 비롯한 국민여론이 도서관을 도와주어야 한다. 각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도서관위원회의 자동 멤버이니 정책은 이행될 것이다. 특히 군대의 경우 대대급 이상에는 대부분 병영도서관이 설치되어 대략 1800 개에 이른다. 이에 대한 콘텐츠 확충이 절실하다.”

앞서 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 4대 방향으로, 개인의 가능성을 발 견하는 도서관,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등을 밝혔다.

문학작가로 데뷔한 신 위원장은 ‘신영’이라는 필명을 지었다. ‘새로운 젊은이’이란 뜻에서 이런 필명을 지었다. 정치인이 아니라 ‘작가 신영’으로 불려달라면서, “최근 ‘두브로브니크에서 만난 사람’이란 소설을 내면서 작가로서 데뷔한 셈”이라고 했다.

이 책은 정치개혁을 주도하며 20여 년간 정치가로 활동해 온 신 위원장의 문학적 감각을 엮어 낸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선과 분석력이 돋보이는 장편 소설이다. 단순한 여행기의 형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발간반도의 잔혹한 현대사를 소설 속에 녹여냈다.

“사서 0명 공공도서관 48곳, 법정 충원율도 26% 그쳐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 정치인·관료 문화 인식 바뀌어야 “ | 우리 지금 문화 투쟁 중” 직원 독려

[2019. 3. 30. 중앙SUNDAY=신준봉 전문기자]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공공도서관 정책의 컨트롤 타워다. 5년마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는 그에 맞는 실행계획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게 돼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생겼다.

위원회는 지난 1월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모토로 하는 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계획은 진일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하지만 위원회에 실제 결정 권한이 없다 보니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기남 위원장을 지난 27일 만났다.

■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 공공도서관의 수준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상위권이다.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 문화수준은 열악하다. 유럽이라고 다 우리보다 잘사는 게 아니다. 못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수준이 높다. 두껍다. 도서관은 문화선진국의 첩경이다. 옛날식으로 책만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뒤쳐져 있나.

“나는 지난 20년간 도서관인이었다. 국회의원 하던 2006년 도서관협회장 자격으로 세계도서관대회를 서울에서 열었다. 외국에서는 한국이 도서관도 선진국인 줄 안다. 도서관 건물, 장서도 늘려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서 배치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진다. 법에 정해진 충원율의 26%밖에 안 된다. 사서가 한 명도 없는 공공도서관이 48곳이나 된다. 건물 짓고 책만 갖다 놓는다고 도서관 되는 게 아니다. 전문가인 사서가 장서를 활용해 이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궁리해야 한다.”

■ 사서 증원을 강제할 방법이 있나.

“정치인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를 장악하는 경제관료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다. 대통령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 위원회에 결정권한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권이 바뀌자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동안 사무실도 없었다. 위상이 위축되다 보니 지자체들의 계획 심의를 엄밀하게 하지 못했다. 우리가 지자체를 감시할 수는 없다. 독려, 촉구 정도를 할 수 있다. 지자체나 국가에 돈이 없어 도서관에 못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시 관심이 부족해서다. 직원들에게 항상 ‘우리는 지금 문화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경제 제 일주의 나라에서 문화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도서관과 함께 포용사회를 만들어가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6기 출범 1주년 포럼

[2019. 4. 19. 연합뉴스=이웅 기자]



축사하는 김용삼 문체부 차관



개회사하는 신기남 위원장

도서관을 포용성 있는 사회를 일구는 발판으로 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정위)는 제 6기 도정위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정책포럼을 19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포럼 주제는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이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종합계획의 의의를 되새기고 이를 토대로 도서관과 함께 포용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장은 "도서관은 정보와 지적 활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아우르고, 시민의 힘을 키워나가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은 "사람에 대한 포용성이란 지역 자원과 협업해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택용 상지엔지니어링 부사장은 본인이 건축에 참여한 울산시립도서관을 사례로 들며 지역 사회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설명했다.

최준혁 동명대학교 교수는 도서관의 공간을 계획할 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도서관을 문화적 활동의 총체를 지원하는 장소로 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정현태 한국도서관협회 사업본부장은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제안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법원도서관장, 지역별 도서관장, 관련 협회장 등 다양한 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은 "도서관이 포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의 청사진이 되어 도서관이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9년 우수도서관 51곳 총상금 5,850만 원 수여

10. 16. 부산에서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2019. 10. 11. 컬처타임즈=백석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19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 따라 우수도서관 51곳에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 수여식은 10월 16일(수) 오후 4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 56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포상 규모는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7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3점, 문체부장관 표창 33점, 도서관위원회위원장 특별상 6점이며, 부상으로 51개관에 상금 총 5,850만 원을 수여한다.

올해 대통령표창은 서울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과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받는다. ▲ 공공도서관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주도형 독서 동아리와 같은 지역 동호회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 특화 정보서비스 제공,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 및 지식정보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확대 등의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했다. ▲ 학교도서관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과 교육과 연계한 장서를 선정해 구입하는 등 교과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사서교사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독서 수업과 논문 작성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교양과 논문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했다.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으로는 ▲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송파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강서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등 4 개관이, ▲ 학교도서관 부문에서는 경기 성남수정초등학교, 대흥중학교(경기) 등 2 개관이, ▲ 병영도서관 부문에서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도서관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분야 기관에만 수여했던 도서관위원장특별상을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분야에도 신설해 각 1 개 기관씩 포상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도서관위원회는 대국민 도서관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2008 년부터 매년 공공학교·병영·교도소·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해 우수 도서관을 선정해왔다. 올해는 2,315 개관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5 개 관 중, 5 개 영역별 90 개 평가지표를 적용해 1 차 정량평가, 2 차 정성평가, 3 차 현장실사, 4 차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우수도서관은 전국 도서관인 3 천여 명이 모이는 제 56 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의 시상을 통해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우수도서관 인증 현판을 부착할 수 있는 특전을 받는다.

문체부와 도서관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우수도서관을 발굴·선정하고, 도서관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 공연, 교육, 전시 등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 "조사·연구 기능 확대 필요하다" 도서관법 전부 개정안 통과시 '국가도서관위'로 명칭 변경

[2019. 10. 21. 내일신문=송현경 기자]



지난 17일 제 56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는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신기남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윤희 위원(출판저널 대표)이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도서관-독서정책 협력 방안’을, 이지연 위원(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미래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전략’을 발표했다. 이상복 위원(대진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국가도서관위원회(가칭)의 위상과 과제’를 밝혔다.

이상복 위원은 6기 도서관위원회의 가장 큰 업적에 대해 전임인력을 확보한 점을 꼽았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구성과 예산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통제를 받아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6기 도서관위원회는 문체부,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 8명의 전담인력을 갖췄으며 국립중앙도서관 7층에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에는 도서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관위원회의 위상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상복 위원은 향후 도서관위원회의 역할로 “소극적 하향식 정책개발에 치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서관 현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는 도서관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예산 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앞서 신 위원장은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도서관 정책의 최고기관”이라면서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법 개정안에 의하면, 위원회는 ‘국가도서관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그 이름에 걸맞게 더 큰 활동을 펴게 돼 있다”면서 기대를 밝혔다.

전국 도서관 운영실적, 내년부터 지자체가 평가 [2019. 12. 18. 뉴스시스=박정규 기자]



그동안 중앙에서 평가하던 전국 도서관 운영실적을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게 된다. 단순히 규모로만 도서관 운영을 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18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및 향후 개선방향'을 심의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했다.

개선방향에 따르면 그동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구성하는 운영평가위원회가 실시하던 전국 단위도서관 운영평가를 앞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단위도서관에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많은 전국 단위도서관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평가한 탓에 인력이나 규모 등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가 이뤄진 만큼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평가하면 우수사례 중심의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또 이날 심의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광역단체에 설치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위한 가칭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협의회'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른 내년 시행계획 등도 이날 심의·확정됐다. 내년 시행계획에는 국비 4275억원, 지방비 4860억원, 민간 4억원 등 총 91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도서관 인프라 확대 분야에 총 예산의 75%를 투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7년 6월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과 도서관 정책 수립과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6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문체부 장관(부위원장) 등 11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위원 18명 등 29명으로 구성돼있다.

2019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개선 방향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은 “앞으로 도서관 정책이 오늘 확정된 시행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중심체인 도서관의 핵심가치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도서관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심의·확정...도서관법 개정 논의 [2019. 12. 18. 뉴스핌=이현경 기자]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18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6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갖고 현안 및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 3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른 2020 년도 시행계획(안),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2019 년 10 월 8 일, 대통령령 제 30111 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사무기구 운영규정(안) 등을 심의했다. 아울러 2019 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향후 개선 방향과 17 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운영되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기남 위원장은 “제 3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각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했고, 오늘 회의를 통해 2020 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며 “향후 도서관 정책이 오늘 확정된 시행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2020 년 4 월 임기가 끝나는 제 6 기 도서관위원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도서관위원회의 향후 전략과 실행과제를 제안했다.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는 도서관 기능과 이에 맞는 ‘도서관법’ 개정 추진, 도서관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와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를 대표해 참석한 김용삼 제 1 차관은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중심체인 도서관의 핵심가치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도서관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통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서관위원회는 2007년 6월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제6기(2018년 4월 9일~2019년 4월 8일)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문체부장관(부위원장) 등 11개 부처 장관과 위촉진 위원 18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文 "새해, 국민이 미래에 대한 믿음 갖게할것" 자문기구 만찬

[2019. 12. 28. 머니투데이=김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기구 및 소속 위원장 등 초청 만찬에 참석하며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기구 및 소속 위원장 등 초청 만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 “새해에는 우리 정부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주요 대통령 자문 및 대통령직속 위원회 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1시간 5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각 위원장,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급 청와대 참모 등 30여명과 저녁식사를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 체감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어도 가야할 길은 분명하게 직시하고, 걸어온 길은 되돌아 보면서 성과를 확인하며, 가야할 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직시와 확인, 확신을 위해 대통령자문 및 직속 기구들이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이제민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엔 주어진 도전과제가 많고 갈림길에서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수십년 후의 대한민국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그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각 분야의 성과와 계획 등을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듣고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 부처처럼 각 위원회들도 서로 협업을 통해 일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찬에는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 차산업혁명 위원장, 한완상 100주년기념사업위원장,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 6 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발행일 | 2020년 4월 8일

발행처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www.clip.go.kr

발행인 | 신기남 위원장

감수 | 박주옥 사무국장

기획·편집 | 이용미

집필 | 이용미, 김태경, 김명숙, 김희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7층

연락처 | 02-590-6243

인쇄처 | (주)계문사(02-735-6867)

© 2020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www.clip.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